#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vol.9
2024년 7월
(대한민국 106년 7월)

vol.9
—
##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Declaring Independence to the World

## 조국의 독립을 세계에 외치다



파리강화회의 임시정부 대표단(1919)



워싱턴회의 참가 교섭을 위해 모인 구미위원부 단체 사진(1921)




샌프란시스코회의에 파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1945)



재중국자유한인대회 (1943)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한 한국인 유학생 대표(192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외교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그들의 청사진은 식민 지배의
부당함뿐만 아니라 나라를 향한 애국심을 큰 원동력으로 삼아
그려졌습니다. 치열했던 그날들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표지 사진 출처(파리강화회의, 재중국자유한인대회, 샌프란시스코회의)—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vol.9

「독립신문」 웹진 바로가기

www.nmkpg.go.kr
www.facebook.com/imjung0411
www.twitter.com/imjung0411
www.instagram.com/imjung0411
www.youtube.com/imjung0411

## 특집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 보장과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문제를 크게 부각시켰고,
1943년 12월「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
보장 내용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펼쳐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조명해 봅니다.

**발행인** 김희곤
**편집인** 김종규
**편집주간** 강경표
**편집기획·진행** 강도예·이동후·홍민서

**발간등록번호** 11-1830024-000001-08
**ISSN** 2951-0430
**발행일** 2024년 7월 31일
**발행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홈페이지** www.nmkpg.go.kr
**전화** 02-772-8708
**웹진** nmkpg.go.kr/webzine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기념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과 자료의 저작권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과 각 소장처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집_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02 신규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
06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미국 외교
10 임시정부의 대유럽 외교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상하이에서 온 소식


14 대한민국 임시정부, 동맹국에 승인을 요구하다


### 임시정부의 인물들


18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독일 유학생들의 독립운동나무


### 임시정부의 자료


2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증언한 『중한외교사화中韓外交史話』


## 모두의 독립운동

### 세계의 독립운동


28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사


## 기념관

### 특집


32 2024년 제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 학술/연구


34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총서 제4집 발간


### 교육/행사


36 제3, 4, 5회 월간 인문학 강좌 운영 등

40 소식

# 신규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

— 글. 배경한(전 신라대학교 사학과 교수)

## 1910년대 신규식의 한중연대 활동과 대중국 민간외교

잘 알다시피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외 독립운동의 중심축이 되는 임시정부가 왜 상하이에 만들어졌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 상하이 지역 한인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그럴 경우 1910년대 상하이 지역 한인사회의 형성 과정과 함께 그 중심 지도자 신규식을 만나게 된다.

대한제국의 무관 출신으로 서울에 있던 관립 한어漢語학교에서 중국어를 익힌 신규식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했으나 순국하지 못하고 한쪽 눈만 잃은 비운의 인물이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망국의 치욕을 경험한 신규식은 다시 한번 음독을 하지만 그마저 성공하지 못한 채 울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1911년 12월, 당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민회新民會의 연락망을 통해 중국의 혁명 소식을 듣고 곧바로 중국행을 결심하였고 중국혁명의 중심지인 상하이上海와 난징南京으로 향했던 것이다.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대로 신규식이 신해혁명 곧 우창기의武昌起義에 직접 참가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지만, 혁명정부南京臨時政府 성립 직후인 1912년 1월 난징 도착 이후부터 황씽黃興, 후한민胡漢民 등 혁명파 지도자들과 직접 교유하였고 혁명의 성공을 지지하기 위해 성금을 내는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신규식은 비슷한 시기에 상하이와 난징 지역으로 망명해온 한인 지사들, 예컨대 김규식, 박은식, 조소앙, 홍명희, 신채호 등과 함께 1910년대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독립기념관

신규식

이들 초기 한인 망명자들은 난징과 상하이에서 동제사同濟社라는 단체를 만들고 유학생들의 어학 공부와 정착을 돕는 등 일련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화북 지역과 동북 만주 및 노령(러시아령 연해주) 지역을 포함한 해외 여러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 세력과 연락망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 한편 이들 한인들은 중국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라는 이름의 한중연대 조직을 만듦으로써 이후의 중국 내 독립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다. 신아동제사의 결성은 신규식 중심의 상하이 지역 한인들이 벌인 초기의 대중국 민간외교의 성과로서 이후 해외 독립운동의 주축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만들어지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

신규식을 비롯하여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한인 지사들은, 중국 혁명에 참여하여 중국이 강성해지도록 도운 다음 그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독립과 근대적 국가 건설을 이룩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한인 지사들에게 중국혁명은 남의 혁명이 아니라 자신의 혁명운동이었으니 신해혁명은 중국 일국의 공화 혁명이 아니라 아시아 내지 동아시아의 공화 혁명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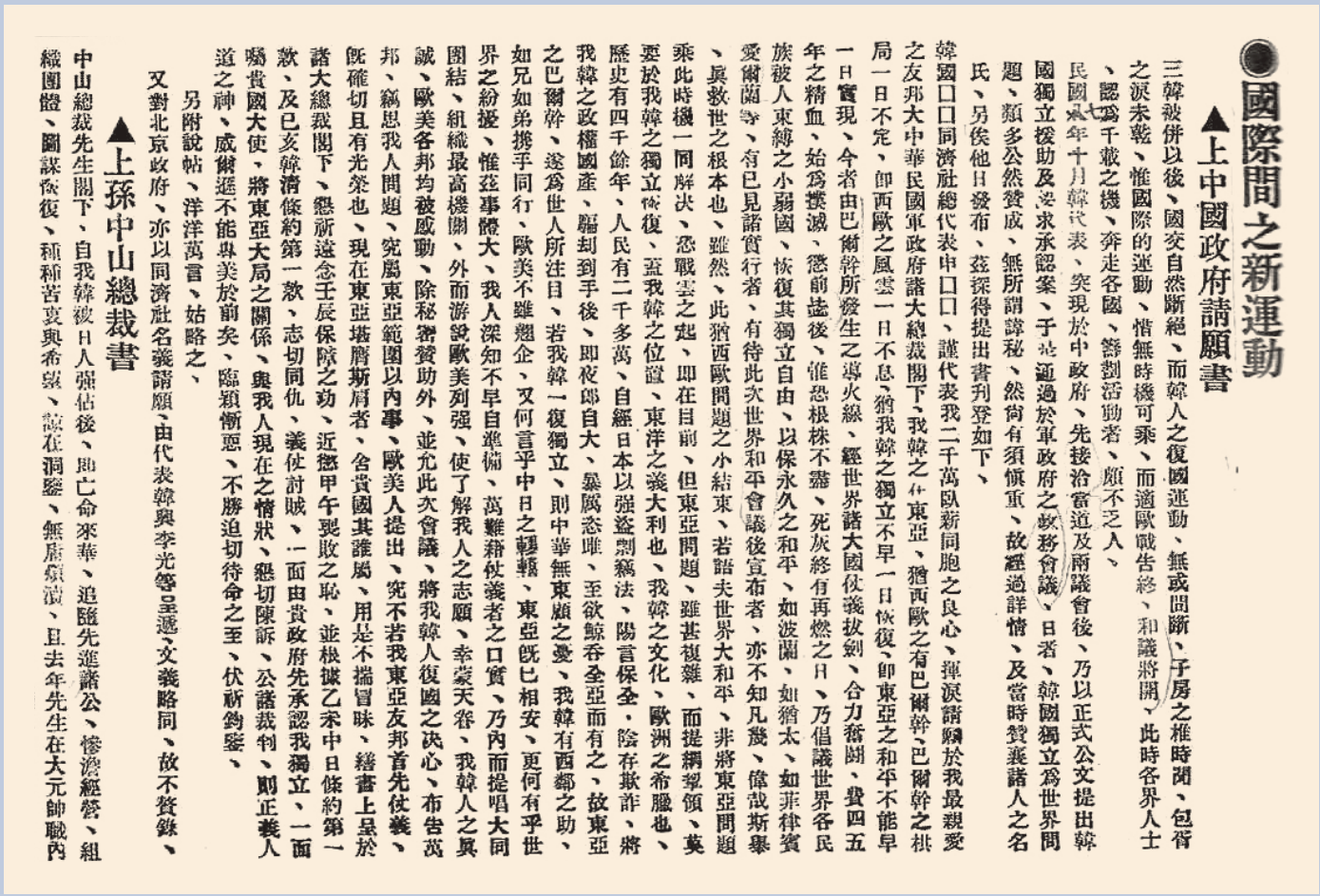


동제사 개천절 모임(1912. 11. 11.)(박정규 편저『조국광복과 민족혁명의 선구자 예관 신규식』, 예관편찬위원회, 2019, 50쪽.)

## 파리강화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내 청원외교운동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곧이어 강화 협상을 위한 국제회의가 소집되었는데 파리강화회의가 그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세계 최대 열강의 지위에 오른 미국이 파리강화회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유럽 내 소수민족들에게 독립과 자주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세계 각지의 식민지 약소민족들에게도 민족 독립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지의 한국 독립 지사들에게도 민족자결주의 주장은 엄청난 기대를 안겨주었으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 한인 지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중국 내에서 일본의 독점적 세력 확대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특사를 파견하여 중국의 파리강화회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은 신규식을 비롯한 상하이 지역 한인 지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상하이 한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여운형이 신한청년당을 만들고 그 대표 자격으로 김규식을 파리에 급파하였고 김규식은 파리에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만들고



## ◉國際間之新運動

### ▲上中國政府請願書

三韓被併以後、國交自然斷絕、而韓人之復國運動、無或間斷、子房之椎時聞、包胥之淚未乾、惟國際的運動、惜無時機可乘、而適歐戰告終、和議將開、此時各界人士、認爲千載之機、奔走各國、籌劃活動者、頗不乏人、

民國八年十月韓代表、實現於中政府、先接洽當道及兩議會後、乃以正式公文提出韓國獨立援助及要求承認案、于是通過於軍政府之政務會議、日者、韓國獨立爲世界問題、類多公然贊成、無所謂諱秘、然尙有須愼重、故經過詳情、及當時贊襄諸人之名氏、另俟他日發布、茲探得提出書刊登如下、

韓國口口同濟社總代表申口口、謹代表我二千萬臥薪同胞之良心、揮淚請願於我最親愛之友邦大中華民國軍政府諸大總裁閣下、我韓之在東亞、猶西歐之有巴爾幹、巴爾幹之棋局一日不定、卽西歐之風雲一日不息、猶我韓之獨立不早一日恢復、卽東亞之和平不能早一日實現、今者由巴爾幹所發生之導火線、經世界諸大國仗義拔劍、合力奮鬪、費四五年之精血、始爲撲滅、德前盜後、雖恐根株不露、死灰終有再燃之日、乃倡議世界各民族被人束縛之小弱國、恢復其獨立自由、以保永久之和平、如波蘭、如猶太、如菲律賓愛爾蘭等、有已見諸實行者、有待此次世界和平會議後宣布者、亦不知凡幾、偉哉斯舉、眞救世之根本也、雖然、此猶西歐問題之小結束、若語夫世界大和平、非將東亞問題乘此時機一同解決、恐戰雲之起、卽在目前、但東亞問題、雖甚複雜、而提綱挈領、莫要於我韓之獨立恢復、蓋我韓之位置、東洋之義大利也、我韓之文化、歐洲之希臘也、歷史有四千餘年、人民有二千多萬、自經日本以强盜劫竊法、陽言保全、陰存欺詐、將我韓之政權國產、驅刼到手後、卽夜郎自大、暴厲恣睢、至欲鯨吞全亞而有之、故東亞之巴爾幹、遂爲世人所注目、若我韓一復獨立、則中華無東顧之憂、我韓有西鄰之助、如兄如弟携手同行、歐美不難翹企、又何言乎中日之輔車、東亞既已相安、更何有乎世界之紛擾、惟茲事體大、我人深知不早自準備、萬難藉仗義者之口實、乃內而提唱大同團結、組織最高機關、外而游說歐美列强、使了解我人之志願、幸蒙天眷、我韓人之眞誠、歐美各邦均被感動、除秘密贊助外、並允此次會議、將我韓人復國之決心、布告萬邦、竊思我人問題、究屬東亞範圍以內事、歐美人提出、究不若我東亞友邦首先仗義、既確切且有光榮也、現在東亞堪膺斯肩者、舍貴國其誰屬、用是不揣冒昧、繕書上呈於諸大總裁閣下、懇祈遠念壬辰保隣之功、近懲甲午戕敗之恥、並根據乙未中日條約第一款、及巳亥韓清條約第一款、志切同仇、義使討賊、一面由貴政府先承認我獨立、一面囑貴國大使、將東亞大局之關係、與我人現在之情狀、懇切陳訴、公諸裁判、則正義人道之神、威爾遜不能舉美於前矣、臨穎慚惡、不勝迫切待命之至、伏祈鈞鑒、

另附說帖、洋洋萬言、姑略之、

又對北京政府、亦以同濟社名義請願、由代表韓興李光等呈遞、文義略同、故不贅錄、

### ▲上孫中山總裁書

中山總裁先生閣下、自我韓被日人强佔後、卽亡命來華、追隨先進諸公、慘澹經營、組織團體、圖謀恢復、種種苦衷與希望、諒在洞鑒、無庸贅瀆、且去年先生在大元帥職內

중국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 『진단주보』 기사(제6호, 1920. 11. 14.)

강화회의 참석과 독립 선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본이 승전국의 자격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가 참석하도록 허용 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니 파리위원부는 회의장 밖에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외교 선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내에서 신규식과 동제사 멤버들을 중심으로 전개한 청원 외교 운동이다. 김규식 대표 파견 당시 신규식은 항저우杭州에서 신병 치료 중이었는데 강화회의 대표 파견 소식을 듣자 바로 혁명파 정부가 있던 광저우廣州로 가서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 파견을 지지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한편으로는 베이징 지역의 동제사 멤버들을 통해서 베이징 정부 측과 베이징 주재 미국공사관 측에도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청원 운동에 나섰다. 물론 이러한 청원 운동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은 거의 없었지만 다만 일부 중국인들 가운데 한국인들의 청원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대응은 이끌어 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 및 중국을 상대로 한 청원 운동과 동시에 국내에서 대표 파견을 후원 지지하는 거국적인 반일 시위운동, 곧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3·1운동은 비록 많은 희생 끝에 실패했지만 국내외에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천명하였으며 상하이에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성과를 낳았던 것이다.

### 워싱턴회의 참석을 위한 대중국 외교활동 - 신규식과 쑨원孫文 사이의 회담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성립된 몇 달 뒤인 1919년 11월 해외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출범하게 된 통합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이 1920년 12월 상하이에 와서 취임하였다. 그러나 재정 문제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승만이 1921년 5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게 되자 임시정부는 심각한 내분의 위기 속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 워싱턴회의였다. 워싱턴회의는 1921년 7월, 미국 대통령 하딩(Warren G. Harding)이 제안한 다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계속되고 있던 열강들 간의 군비경쟁을 조정하고 군비경쟁에 따른 각국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자는 공동의 목표에 열강들이 호응하면서 열리게 되었다. 특히 영일동맹의 존속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견제 요구가 워싱턴회의 소집의 이면에 깔려 있었다는 점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가들로 하여금 이 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이의異議가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승만이 떠난 뒤 국무총리 대리와 외무 총장을 겸하며 사실상 임시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신규식이 1921년 9월 말 상하이를 떠나 약 두 달간 광저우를 방문하고 중국 혁명정부, 곧 호법정부의 최고지도자 쑨원孫文과 회담한 것은 바로 워싱턴회의 참가를 위한 대중국 외교활동이었다. 1921년 10월 10일에 이루어진 쑨원과의 회담에서 신규식은 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 승인과 재정적 지원,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 학생 입학 등을 요청하였다. 당시 호법정부 휘하의 비상 국회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호법정부에서는 임시정부의 대표를 광저우에 주재하도록 허용하였으며 다수의 한국 학생들을 남방 정부 휘하 각성各省의 군관학교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지원책에 동의하였다. 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 승인은, 임시정부가 실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영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다만 호법정부 휘하 비상 국회에서 한국독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당시 중국의 대표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에 쑨원의 남방 호법정부 자체가 워싱턴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임시정부의 워싱턴회의 참가를 지원해 줄 여력은 없었다.



쑨원

## 외교활동의 좌절과 신규식의 순국

1910년대와 1920년대 초에 걸친 시기에 신규식을 비롯한 한인 지사들의 중국 혁명 참여와 그를 통한 중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중국 혁명 자체가 한국독립을 지원해 줄 만큼 순탄하지 못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중국 중심주의, 곧 중화주의적 입장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쑨원을 비롯한 중국 혁명파 지도자들의 경우에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전통적 중화주의中華主義적 영토 관념과 함께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거나 완충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호법정부의 사실상의 승인을 얻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식은 1921년 12월 상하이 귀환 이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임시정부 자체가 재정 조달 등 기본적인 존립 기반을 가지지 못한 채, 외교 노선과 군사노선 등 노선상의 갈등 속에 분파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식이 지나치게 중국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사대주의자"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이 신규식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신규식은 워싱턴회의가 종결된 직후인 1922년 3월 20일, 국무총리 대리와 외무 총장에서 사임하였으며 그 후 임시정부는 더욱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신규식은 원래 앓고 있던 심장병과 신경쇠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금식을 단행하였고 절망 가운데 9월 25일 순국하고 말았다. 국제적 정의와 도덕에 의존하는 외교 독립운동은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미국 외교

— 글.김도훈(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 1차 세계대전 종결과 국제사회 재편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4년이 지난 1918년에야 마무리되었다. 이후 전후 처리와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관련 당사국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와 1921년의 워싱턴회의가 그것이다.

파리강화회의 개최 전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 국가들로 하여금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 그러나 파리강화회의는 승전국인 연합국이 패전국인 동맹국(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독일제국, 오스만제국 등)에게 전쟁에 대한 책임과 배상 등을 묻기 위한 자리였다. 따라서 식민지 국가의 독립은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을 뿐이었다.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한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회의 결과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 부상,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일본이 동아시아 신흥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주에 대한 반영구적 지배권을 확보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팽창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영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 등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동아시아 팽창정책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회의가 1921년의 워싱턴회의였다.

국제정치는 강대국들의 이익과 상호 견제가 작용한다. 따라서 당시 열강들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인들의 독립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설령 한국의 독립에 대해 관심을 보였더라도 일본의 팽창정책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버릴 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파리강화회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 워싱턴회의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 구미위원부와 워싱턴회의

1919년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정부 승인'이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미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1919년 8월 이승만은 한성임시정부 집정관 총재 명의로 워싱턴 D.C.(이하 워싱턴)에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Korean Commission)를 설치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구미위원부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필리델피아와 시카고에는 통신부를 두었다. 또한 유럽인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도 사무소를 설치하고, 북미·하와이·멕시코 등에는 지방위원부를 설치했다.


$50 No. 369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of Indebtedness

This Certifies that there is due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Bearer, the sum of FIFTY DOLLARS, of the standard of value, weight and fineness of gold coi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redemption of which we pledge the good faith and credit of the Republic of Korea upon presentation to the Minister of Finance, at Seoul, Korea, within one year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original holder hereof having loaned the amount of this certificate of indebtedness to the Republic of Korea. Redemption shall be made either in cash or in authorized bonds of the Republic of Korea drawing not less than four per cent per annum as the said Minister of Finance, acting for the said Republic of Korea, by proper authority shall direct. This certificate shall draw interest at six per cent per annum until time for redemption as above specified.

Done and certified by and for the Republic of Korea this first day of September, A. D. 1919.

ATTEST: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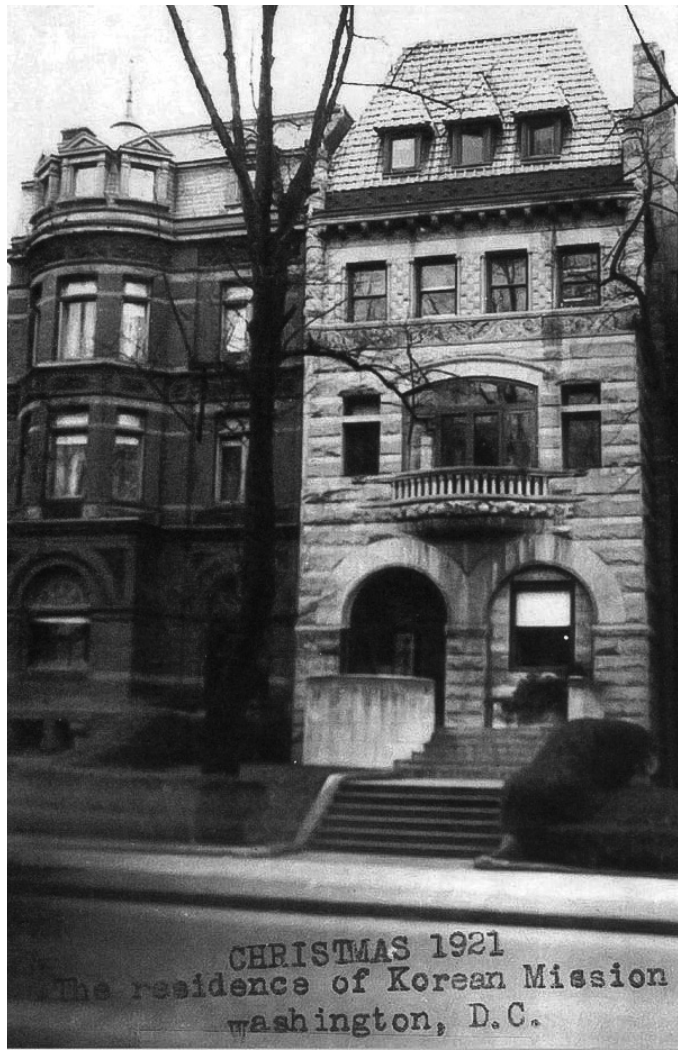
대한민국공채표(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50달러 독립공채)

구미위원부는 1919년 4월 서재필이 이끈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의 활동을 이어받아 확장한 것이다. 구미위원부는 한국통신부 시절인 1919년 5월 미국인을 중심으로 조직했던 한국친우회韓國親友會(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를 미국 21개 도시와 유럽의 런던과 파리까지 확장하며 회원 2만 5천 명을 확보했다. 또한 한국통신부에서 발행한 영문 잡지『한국평론(Korea Review)』과 다양한 선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구미歐美 각국에 한국의 독립을 선전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구미위원부의 활동 중 가장 큰 활동은 워싱턴회의 참가였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된 워싱턴회의(1921.11~1922.2)는 미국, 영국, 일본 등 9개국 대표단이 군비 축소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서로의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워싱턴회의 개최 소식을 임시정부에 가장 먼저 알린 인물은 서재필이었다. 서재필은 1921년 7월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외교 활동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서재필의 요청에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에 모든 사항을 위임했다.

이미 1919년 파리강화회의 실패를 경험한 임시정부는 워싱턴회의를 독립운동의 마지막 외교 무대로 인식했다. 물론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국 측 그 누구도 워싱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자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꾸렸고, 임시정부는 이를 적극 후원했다. 1921년 9월 임시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단은 워싱턴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대표단이 아무런 국제상 지위도 없고, 공식 초대로 받지 못한 미자격 대표단이며, 1차 세계대전 5대 승전국 중 하나인 일본의 식민지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 대표단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한국의 독립 문제는 워싱턴회의 의제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파리강화회의에 이어 두 번째 외교 활동 무대였던 워싱턴회의에서도 참가조차 못 하는 결과를 빚었다. 워싱턴회의 참가 무산으로 재미 한인들은 구미위원부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재정 지원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났다. 이후 구미위원부는 겨우 사무실만 유지하며 사실상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여 전쟁이 일어나길 기대했던 바람과는 달리, 미일 간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자, 1937년 중일전쟁까지 별다른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도 없었다.




구미위원부 본부(워싱턴,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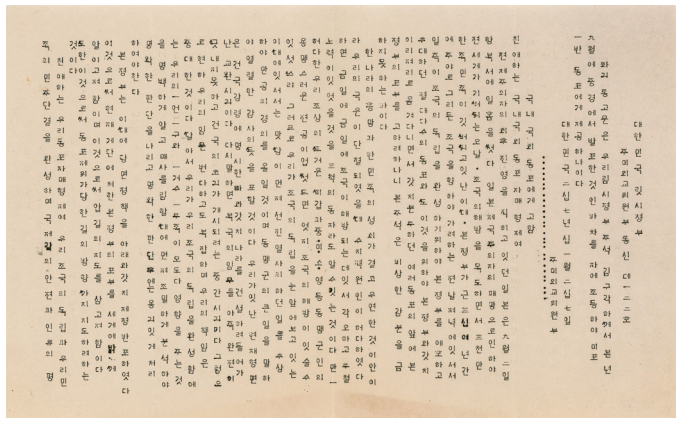
구미위원부 직원 일동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 주미외교위원부와 주미외교위원회

임시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유랑생활을 정리하고 1940년 9월 충칭에 안착했다. 충칭에 자리를 잡은 임시정부는 본격적으로 일본과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9월 17일 창설된 한국광복군이 그것이다. 광복군 창설과 함께 임시정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다. 1941년 6월 임시정부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임시정부 승인과 원조,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 참가 승인을 요청했다.

임시정부의 대미 외교는 재미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1941년 4월 북미와 하와이 한인 단체 대표들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이하 한족연합회)를 창립했다. 한족연합회는 임시정부 후원, 독립운동 확대를 위한 외교와 선전, 미국의 국방사업 후원을 주된 목표로 설정했다. 한족연합회는 외교와 선전 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주미외교위원부(이하 주미외교부)를 설치한 뒤, 임시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임시정부는 주미외교부를 추인하고 임시정부 외무부 산하로 편입시켰다. 주미외교부 위원장은 이승만이었다. 한편, 한족연합회는 임시정부 후원을 위해 '독립금' 명목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전체 재정의 2/3를 임시정부로



©독립기념관

김구의 통고문이 실린 『주미외교위원부 통신』(제122호, 1945. 11. 27.)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주미외교위원부 협찬회 일동

송금했다. 나머지 1/3은 미주에서 사용할 외교와 국방공작 후원 경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1941년 진주만 공습 다음 날인 12월 8일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자, 임시정부도 다음 날인 12월 9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승만에게 대미 외교 활동을 지시하였다. 주미외교부는 미국정부에 임시정부 승인과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주미외교부는 1942년부터 3년 동안 미국 국무부·전쟁부·백악관 등에 임시정부 승인과 무기 대여를 30여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미협회 등 미국인 중심의 후원단체를 조직하여 미국 정부 각 부처에 임시정부 선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중 성과를 거둔 것은 1942년 2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대한인자유대회였다. 한족연합회와 주미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에는 미국인 회원 상당수가 참석하여 연설했다. 미국인 회원들은 한국의 독립, 임시정부 승인, 이승만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 승인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1942년 초 미국 국무부는 임시정부 불승인과 함께 신탁통치 실시를 정책 방침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에 대해 임시정부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임시정부는 주미외교부를 대미 외교 통로로 단일화했지만, 1943년 중반부터 재미한인사회는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주미외교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임시정부는 1944년 8월 주미외교부를 폐지하고 주미외교위원회(이하 주미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그대로 이승만이 맡았다. 그러나 내부 갈등이 깊어진 관계로 주미위원회는 전처럼 전폭적 지원을 받기 힘들었다. 이후 이승만은 대미 외교보다는 한미협회의 공동 행사, 또는 이승만 개인 선전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재미한인사회에서는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일었다.

주미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은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었다. 이승만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임시정부 승인이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이 소련에 한국의 지배권을 양도했다는 이른바 '얄타밀약설'을 제기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 국무부 관리를 공산주의자로 비판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원하던 정부 승인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 독립운동노선과 외교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최종 목표는 국권회복이었다. 비록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지만, '임시'가 아닌 '정식'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주미외교위원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 참석자들

하는 과제였다.

독립운동 방략에는 흔히 독립전쟁론, 실력양성론, 외교론 등이 거론된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은 독립을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독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실력양성론이나 외교론은 자치론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치에서 외교는 강대국들의 이권 경쟁이자 견제의 수단이었다.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펼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더구나 약소국도 아닌, 식민지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받아들일 강대국은 없었다. 이런 인식은 안창호의 국제 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을 펼친 이유는 독립이라는 절대 가치를 이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임시정부의 대유럽 외교

— 글. 이장규(프랑스 파리시테대학교 박사)



©독립기념관

김규식

20세기 초 유럽은 제국주의의 광풍과 함께 세계열강들이 패권을 다투던 각축장이었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이었다. 1919년 프랑스 베르사유에서는 1차 대전 종전 후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대전 초반 내내 중립을 지키던 미국은 참전하여 연합국의 승전을 이끌었다. 그러한 가운데 1918년 미국 의회에서 선포된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 원칙'은 -특히 제5항의「모든 식민지 문제의 공평한 조치」부분은- 전 세계 약소국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 지사들을 한층 흥분시켰다. 결과적으로 강화회의에서 적용된 윌슨의 민족자결은 패전국 식민지에 한정한다는 것이 전제였지만 약소국가들은 자신들의 독립 문제가 회의에 상정되길 기대하며 저마다 파리로 대표단을 파견했다. 우리는 당시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한청년당을 급조하였고 남다른 외교 감각과 영어에 능통했던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이 대표로 선출되어 파리로 향하게 되었다.

## 파리위원부의 활동

2월 1일 상하이를 출발한 김규식은 3월 중순경 파리에 도착하여 샤토당街 38번지에 한국통신국을 설치하고 즉시 공보 및 청원 활동을 시작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정식으로 외무총장과 강화회의 전권대사로 임명된 김규식은 김탕, 이관용, 여운홍, 황기환, 조소앙 및 5명의 프랑스 현지 사무원을 보강하여 파리위원부의 진용을 갖추었다.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활동을 보인 파리위원부의 활동은 첫째 공보, 둘째 연대와 후원, 셋째 청원서 제출로 요약할 수 있다.

파리위원부에게 있어서 공보 활동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식민지 상태에 놓인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통신전通信箋(Circulaire)」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영문과 불문 매호 2,000부씩 총 23호를 발행하여 각처에 발송하였다. 이외에도「Le Mouvement d'indépendance de la Corée et la Paix(한국의 독립과 평화)」,「The Korean movement(한국의 독립운동)」,「Young Korea(청년한국)」,「La Corée libre(자유한국)」 등의 공보 책자를 각지에 배포하였다. 또한 각종 언론에 기고 또는 제보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당시 임시정부에 보고한『구주의 우리 사업』에 보면, 1919년부터 1920년까지 유럽 각 신문에 한국 문제가 게재된 건수가 총 181종의 신문에 517건, 프랑스는 133종 신문에 423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파리위원부는 프랑스 인권연맹과 협의하여 1920년 1월 8일 생제르망의 지리학회 강당에서 "극동에서 위협받는 평화"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5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3·1운동 당시 부산을 거쳐 산둥반도山東半島까지 여행하던 중 일본의 잔혹한 진압 현장을 직접 목도했던 펠리시앙 샬레 교수가 연설과 함께 한국의 참상을 찍은 슬라이드 필름을 상영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파리위원부는 여러 국제회의에 대표들을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한 세계적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1919년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독립기념관

파리강화회의 임시정부 대표단(1919)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주의자 대회에는 이관용과 조소앙이 참가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결의한 최초의 사례였다.

각국의 우호적인 여론과 동정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약소국가에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사회당, 노동총연맹, 인권연맹 그리고 중국 대표단을 비롯한 약소국가의 대표단 등의 다양한 인사들과 연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1919년 8월 6일 김규식이 파리를 떠나기 전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던 그의 환송연은 그간 그의 활동상을 짐작게 할 만큼 60여 명의 프랑스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과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지지해 주었다. 당시 참석한 이들을 바탕으로 훗날 '한국친우회'가 창립되었다. 또한 여러 약소국가의 대표단, 지도자들과도 연대를 모색하였는데 그중 주목되는 것이 베트남의 호찌민이다. 프랑스 비밀경찰의 '호찌민 사찰 문건'에 의하면 김규식, 황기환 등의 파리위원부 인사들과 호찌민은 프랑스 사회주의자 모임에 동참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자택을 방문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민족들의 권리연맹'의 발기인에 한국대표로서 김규식이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여러 약소민족들의 대표들과 연대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함을 살필 수 있다.



©La contemporaine

「통신전通信箋(Circulaire)」 20호(1919. 9. 5.)

BUREAU D'INFORMATION
DE
LA RÉPUBLIQUE CORÉENNE
38, RUE DE CHATEAUDUN, 38
PARIS - IX^e

BOITE POSTALE 369
ADR. TÉLÉGRAPHIQUE "KOKIM"
TÉLÉPH. : CENTRAL 26-33

5 Septembre 1919

*Monsieur,*

*Nous avons l'honneur de vous adresser la copie d'un article paru sur la Corée dans le Journal " L'Entente " du 4 Septembre, par M. Charles LEBOUCQ, Député de Paris.*

*Nous vous prions, Monsieur, d'agréer l'expression de notre haute considération.*

*B. I. R. C.*

## La Corée et les principes wilsoniens

« Pauvre et douce Corée! » dit un joli livre de Georges Ducrocq, que j'ai sous les yeux. Il y est écrit des choses charmantes. On y prend le goût d'aller vivre dans ce serein pays du « matin calme », dont la capitale n'est qu'un grand village aux toits de chaume. « Les maisons de Séoul sont des paysannes cachées sous leurs cornettes de paille, pas bien riches, quand même heureuses... Les foyers fument, il y a donc des femmes qui les empêchent de s'éteindre, et du bonheur dans les maisons. » La grande joie des citadins est de monter sur la montagne du Midi, le Nam-San, et, de là, de regarder la capitale entre les branches. Il y a sur la crête un petit temple, dont la fille du gardien s'appelle « Qui n'est pas méchante ». Et ce nom, dit M. Ducrocq, pourrait être le surnom de toute la Corée. « Quelques-uns sont

이후 파리위원부는 강화회의 기간 중 총 세 차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김규식은 파리로 출발하기 전 이미 상하이에서 신규식과 함께 작성해 한국공화독립당 총재와 사무총장 자격으로 서명한 서한을 파리 도착 이후 미국대표단을 통해 윌슨 대통령에게 전달하였고, 신한청년당 대표의 서명이 된 해방을 위한 한국 국민의 호소를 담은 「비망록」은 서한과 함께 4월 5일 강화회의에 제출하였다. 이후 파리위원부에서 작성된 정식 청원서와 비망록(영문과 불문 각 10부)은 파리강화회의에 5월 10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윌슨 대통령, 로이드조지 수상 및 클레망소 강화회의 의장에게 각각 편지를 동봉해 공식적으로 한국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그리고 동부전선에서 나가 함께 싸운 5,000명의 한국인을 대신하여 김규식이 제출한다고 서명하였다. 청원서는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 상·하원 및 강화회의 참석차 파리에 머물고 있던 각국 영수들 그리고 파리에 머무는 각국의 재야인사들과 각 신문사 및 파리에 주재 각국 통신원들, 각 지방 신문사와 유럽 각국의 중요 신문사에도 일일이 청원서

가 전달되었다. 각처에 배포한 청원서는 영문과 불문 합계 8,000여 부에 달했다. 또한 김규식은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한국독립을 위한 지속적인 선언서와 요청서」를 황기환에게 보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 독립을 위한 청원 활동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 임시정부 주불대표 서영해

서영해徐領海(1902-?)는 프랑스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25년을 체류했다. 그가 활동했던 30~40년대는 윤봉길 의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나긴 험로를 걷던 시기였기에 유럽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그의 외교활동은 더욱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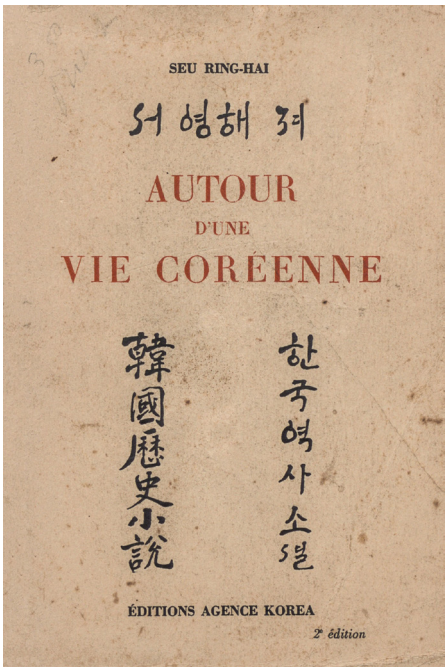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서영해는 상하이로 망명했고 임시정부의 권유로 1920년 12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파리위원부 주선으로 초·중·고등 과정을 거쳐 소르본 대학과 파리고등언론학교에서 언론학과 정치학을 공부한 서영해는 1929년 '고려통신사'를 설립했다. 독립된 언론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고려통신」이라는 선전 책자와 『어느 한국인의 삶과 주변(Autour d'une vie coréenne)』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발간하며 작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작품에 나타난 극동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그를 극동 문제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게 하였다. 이후 언론에 기고한 여러 글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일제 침략의 잔학성을 규탄했다. 그는 1929년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제2회 반제국주의연맹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열변으로 각국 대표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한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뒤 안창호가 일경에 피체되자 서영해는 즉각 프랑스 각 언론기관에 서신을 발송하고 파리 외무성을 상대로 구명운동을 펼쳤다. 비록 안창호 석방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같이 피체된 한인 일부가 석방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후 1933년 1월, 이승만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독립 문제를 부각시켰다. 특히 만주의 한국인 문제를 다루며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수립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리튼보고서」 채택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에 기여하였다.

1936년 3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무부 주법특파위원에 임명된 서영해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활동상과 유럽의 정세를 보고하였다. 그는 1936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만국평화대회에 참석하여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 민족의 자주적 평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1937년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브뤼셀 구국공약회九國公約會에 참석한 그는 개인과 단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한국 문제를 알리고 극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의 중국 침략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글을 통해 '베를린-로마-도쿄의 축'을 설명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예견하기도 했다. 프랑스 경찰국의 보고서에 보면 서영해는 스페인 내전 당시 파시즘에



©독립기념관

서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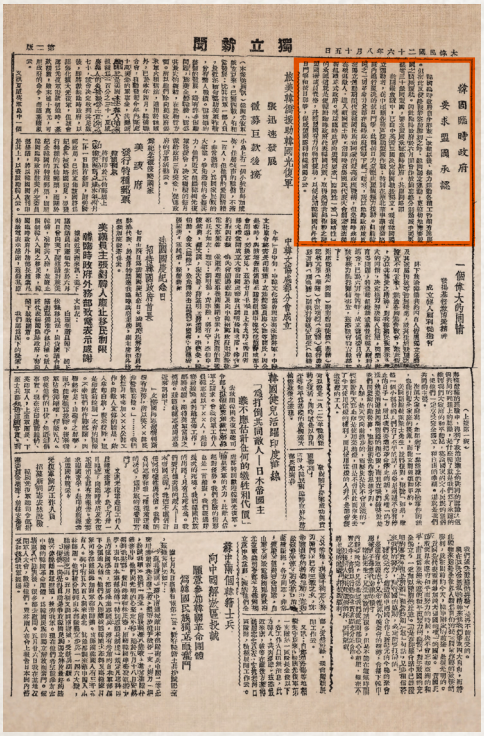
서영해『어느 한국인의 삶과 주변』

저항했던 지식인들을 기리기 위한 '반파시스트 작가회의'에 로맹 롤랑(Romain Rolland) 등의 지식인들과 함께 참가하여 그들을 지지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일본의 밀고로 6개월간 투옥되기도 하였고 석방 후에는 레지스탕스들과 함께 지하활동을 하며 지냈다. 1944년 파리 해방 후, 그는 임시정부와 연락을 재개하며 자유 프랑스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해방을 맞아 귀국을 앞두고 서영해는 '한국친우회' 회장을 역임했던 루이마랭에게 서신을 보내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으로서 한국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한국을 옹호해 준 것"에 대하여 한국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서영해는 1920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이래 1945년 8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유럽 외교의 최선봉에서 활약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졌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는 당시 외교의 중심지이긴 하였어도 아무 연고도 없는 불모지와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과 열악한 여건들을 감내해가며 실로 엄청난 활동을 보여준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와 서영해의 외교활동은 가시적인 실패와 성공을 넘어서 한국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동맹국에 승인을 요구하다

— 글. 최정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獨立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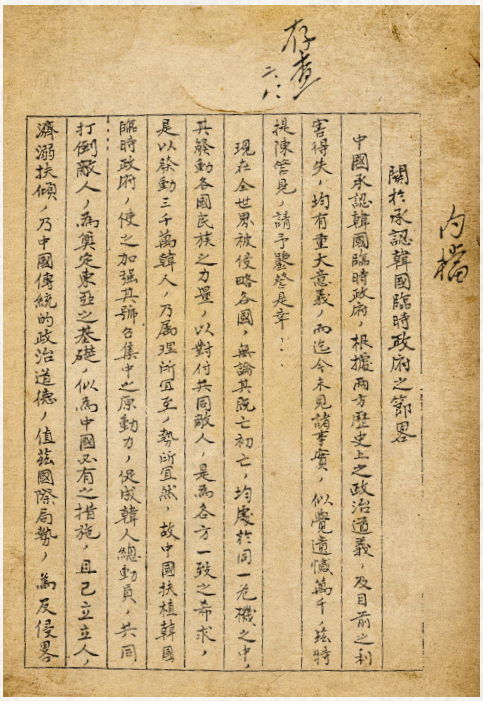
韓國臨時政府
要求盟國承認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동맹국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소식을 전하는『독립신문(충칭판)』(제2호, 1944. 8. 15.)

##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침내 충칭重慶에 정착, 체계적인 승인 외교활동을 시작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1945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대내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일항쟁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최초 상하이上海에서 수립되었으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본거지를 10차례 이동한 후 1940년 9월 충칭重慶에 정착하였다. 충칭에 정착한 후 임시정부는 정부의 조직을 당黨·정政·군軍체제로 정비하였다. 즉, 민족주의 세력을 결집하여 한국독립당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정부의 지도 체제를 집단지도 체제에서 단일지도 체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을 창설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한 군사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42년 좌익진영의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정치와 군사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휘 통할할 수 있는 최고기구이자 민족의 대표 기구라는 위상과 권위를 되찾게 되었다.

충칭에 정착한 이후 임시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한 승인 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다. 승인 외교활동은 중국과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활동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1944년 8월 15일『독립신문』에 실린「한국 임시정부, 동맹국에 승인을 요구하다」기사는 1944년 8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후 처리를 위한 연합국 4개국의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회의 개최에 맞춰 발표되었다. 이 기사에는 임시정부는 한국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기구이며, 동맹국들이 임시정부로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로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 민족을 대표하여 동맹국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얻고 물자 원조를 받아 한국 국내외의 항일투쟁과 항일전쟁을 전개해 동맹국의 승리와 한국의 독립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충칭 시기 임시정부가 추진하였던 승인 외교활동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전개하였던 승인 외교활동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存卷六
內閣
關於承認韓國臨時政府之節畧
中國承認韓國臨時政府，根據兩方歷史上之政治通義，及目前之利害得失，均有重大意義，而迄今未見諸事實，似覺遺憾萬千，茲特提陳管見，請予鑒察是幸！
現在全世界被侵略各國，無論其既亡初亡，均處於同一危機之中，共籌動各國民族之力量，以對付共同敵人，是為各方一致之希求，是以欲動三千萬韓人，乃屬理所宜然，故中國扶植韓國臨時政府，使之加强共團結集中之原動力，促成韓人總動員，共同打倒敵人，為奠定東亞之基礎，似為中國又有之措施，且已立立人，濟溺扶傾，乃中國傳統的政治道德，值茲國際局勢，為反侵畧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1942.1.30.)(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외교활동, 2008, 172쪽.)

## 중국국민당 정부와 한중문화협회를 통해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교섭하다

충칭에 정착 이후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와 교섭하기 위해 중국국민당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고, 대중국 외교활동 목표는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과 재정 지원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1940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12월 10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를 통해 한국도 일본에 대항하여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임시정부는 연합국과 함께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일본과 전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한 후 이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고 한·중 두 나라가 선봉에 서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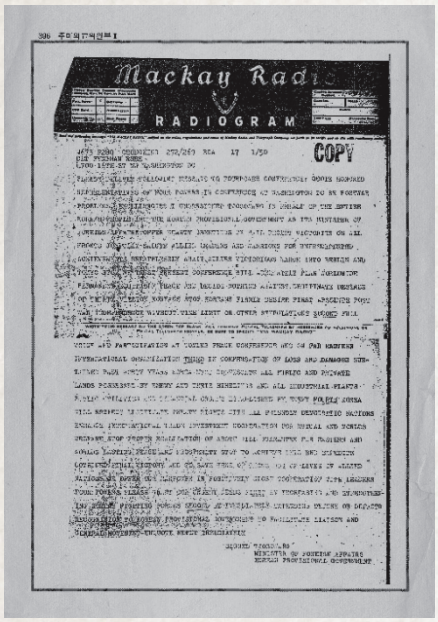
1941년 10월 중국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단일화한다는 것과 함께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영국·미국 정부와 협상하고 중국의 국무회의에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독립운동 세력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임시정부를 지원하되 승인하고 있지 않았는데, 좌우합작을 전제로 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춘 것이었다.

중국 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임시정부는 1942년 1월 30일 김구 주석 명의로 장개석蔣介石에게 「관어승인한국임시정부지절략關於承認韓國臨時政府之節略」을 제출하였다. 김구 주석은 이 요청서에서 국제정세가 반침략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이 임시정부를 승인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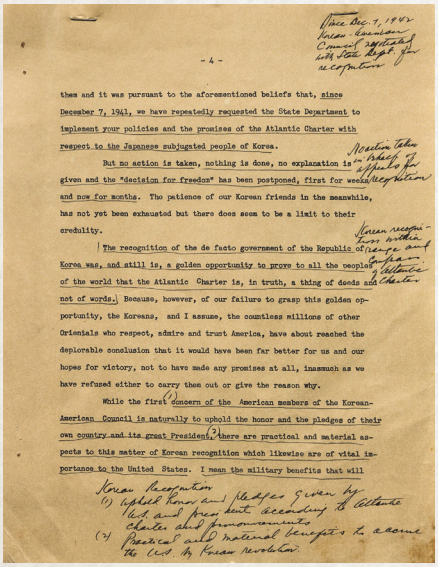
임시정부의 지속적인 승인 요청에 따라 중국국민당 조직부는 임시정부의 승인을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건의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부장 주가화朱家驊는 1942년 두 차례에 걸쳐 장개석에게 중일전쟁이 발발한 7월 7일 또는 쌍십절(10월 10일)을 기념하여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공식 승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김구 주석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 명의로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장개석에게 보내 중국 정부가 솔선하여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과 김구 주석이 장개석과 면담을 통해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1943년 7월 26일 '김구-장개석 면담'에서 김구 주석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여 관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장개석과 면담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루어졌다. 김구 주석은 1944년 7월 3일, 장개석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혁명동지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 동맹국 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들과 싸우기를 원하고 있지만 동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여 군사작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노력은 1942년 외교부장 조소앙, 손문孫文의 아들 손과孫科 등이 결성한 한중문화협회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한중문화협회는 강연회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중 합작과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일으켰다. 특히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자


Mackay Radio
RADIOGRAM
COPY

임시정부가 워싱턴 회담측에 보내는 승인요청서 (1944.8.13.)(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0』, 주미외교위원부 II, 2007, 396쪽.)


- 4 -

them and it was pursuant to the aforementioned beliefs that, since December 7, 1941, we have repeatedly requested the State Department to implement your policies and the promises of the Atlantic Charter with respect to the Japanese subjugated people of Korea.

But no action is taken, nothing is done, no explanation is given and the "decision for freedom" has been postponed, first for weeks and now for months. The patience of our Korean friends in the meanwhile, has not yet been exhausted but there does seem to be a limit to their credulity.

The recognition of the de facto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nd still is, a golden opportunity to prove to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the Atlantic Charter is, in truth, a thing of deeds and not of words. Because, however, of our failure to grasp this golden opportunity, the Koreans, and I assume, the countless millions of other Orientals who respect, admire and trust America, have about reached the deplorable conclusion that it would have been far better for us and our hopes for victory, not to have made any promises at all, inasmuch as we have refused either to carry them out or give the reason why.

While the first concern of the American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ouncil is naturally to uphold the honor and the pledges of their own country and its great President, there are practical and material aspects to this matter of Korean recognition which likewise are of vital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I mean the military benefits that will

한미협회에서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1942. 5. 5.)

©독립기념관

한중문화협회는 동맹국에 조속히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이 임시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았던 것은 미국·영국·소련 등 연합국들의 전후 한반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독자적으로 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임시정부 승인을 유보하였다.

##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관계에 임시정부 승인 외교활동을 전개하다

임시정부는 미국에서도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승인받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대미 외교를 위해 임시정부는 1941년 6월 6일 주미외교위원부를 설립하였고, 임시정부 고위인사, 군사지도자, 민간 차원을 포괄하여 미국의 정·관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1941년 12월 11일 조소앙 임시정부 외무부장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민족 전체가 반침략 운동에 참여하고 추축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한국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미국이 한국의 독립 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942년 9월 29일 한국광복군 지도자인 이청천과 김원봉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면 연합군의 전투력이 증강할 것이며, 승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1944년 6월 17일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이 미국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에게 서한과 비망록을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비망록에서 임시정부의 잠재력과 임시정부를 승인해야만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1944년 8월 13일 임시정부는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한 워싱턴 4개국 회담(덤바턴 오크스 회의)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초략) 연합국들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4대 강국의 긴밀한 합작 하에 우리 한인들의 인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긴급한 요구사항을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한인 무장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 2. 우리들의 독립운동과 연락이 순조롭게 행해지도록 연합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당한 혹은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해 줄 것." (후략)

이 승인 요청서는 전세가 연합국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을 임시정부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과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 정식 정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했던 임시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미외교위원부를 통해서도 미국 대통령, 국무성, 국방성 등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고 면담을 통해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기대여법 적용을 요청하였다. 또한 한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무장관과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한미협회 크롬웰 의장은 미 코델 헐(Cordell Hull) 미 국무부 장관에게 한미협회의 목적을 알리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승인 문제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초략) 사실상의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에도 여전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대서양헌장이 말장난이 아닌 실천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데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후략)"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독립에 우호적인 의견을 가진 미국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의견을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 지속해서 요청하여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압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지속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에 대해 한국 문제가 인도를 포함해 다른 아시아 식민지 국민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한국에 대한 임시정부 승인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고수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선언과 어느 특정 단체(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임시정부의 승인 외교활동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충칭 시기 임시정부는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를 활용할 줄 아는 안목과 역량을 보여주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변화된 전략 환경을 적확的確하게 분석하여 대응한 것은 오늘날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춤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내의 다양한 친한 우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 차원만이 아닌 민간 차원으로 외교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의사결정자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독일 유학생들의 독립운동나무

—글. 이계형(국민대학교 교수)

2024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김갑수(1894~1938)·황진남(1897~1970)·이의경(1899~1950, 이명 이미륵) 등 3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의 상하이 망명 계기, 생몰, 고향 등은 각기 달랐지만, 20대 초중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활동하다가 독일로 유학길에 올랐고, 독일에서 결성된 '유덕고려학우회留德高麗學友會'에서 활동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이들의 얘기를 시작하려 한다.

## 독일 유학 중 유덕고려학우회를 이끈 김갑수

김갑수는 이상재(1850~1927)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김갑수와 이상재는 충남 한산면 종지리 출신으로 동향이다. 이상재는 1902년 '개혁당 사건'에 3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출옥 후 그는 1904년 종지리에 교회를 세우려 하였다. 이때 뒷집에 살던 김갑수의 부친 김영성金永聲이 교회 설립 자금을 대주는가 하면 논산의 어느 고가古家를 헐어 목재를 배로 싣고 와 교회 설립을 도왔다. 당시 김갑수 나이는 10살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김갑수는 이상재의 서울 집에서 기숙하며 경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독립기념관

김갑수

김갑수는 1916년 3월 경성중앙청년학회 동창생 신기준申基俊·이영훈李英勳 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南京 금릉대학에 입학하였다. 금릉대학은 중국 남부의 개신교 교파들이 연합해서 세운 대학이었다. 당시 금릉대학에는 서병호·여운형 등이 수학하고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여운형 등의 주도하에 상하이에 설립된 신한청년당에 가입, 활동하였다. 신한청년당은 1919년 2월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해 회원들을 국내 각지에 파견하였다. 이때 김갑수는 군산에 파견되었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인 간수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상하이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1919년 4월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임시의정원 충청도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의회로서 임시헌법상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였다. 의회는 도별로 뽑힌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되었다. 이 무렵 그는 임시의정원 부의장 김인전金仁全(1876~1923)의 여동생 김정신과 결혼하여 가정을 일궜다. 당시 그는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가지고 국내 잠입, 전북 임피 등지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김갑수는 1921년 임시정부 주선으로 유학생 16명을 인솔하

고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이는 당시 임시정부가 한인 청년들의 해외 유학을 장려하던 것과 1920년 3월 임시의정원에서 외국 유학생 파견을 시행 방침으로 정한 결과였다. 이에 서영해는 1920년 11월 프랑스로 유학길에 올랐고, 김갑수는 독일로 유학을 떠난 것이다.

그는 베를린 뷔츠부르크대학(University of Wurzburg)에 입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하였다. 유학 당시 그는 매우 곤궁하여 안중근 사촌 동생 안봉근安鳳根의 주선으로 수도원에서 수개월간 생활하기도 하였다. 안봉근은 외국인 신부를 따라 독일에 유학하여 전기공학을 공부한 뒤, 베를린에 정착하여 두부 공장을 경영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이때 김갑수는 유덕고려학우회를 조직하여 간사장으로서 68명의 독일 유학생을 이끌었다. 학우회는 베를린 칸트슈트라세(Kantstraße) 122번지 안봉근의 집에 사무실을 두었다.

학우회는『회보(Heba)』잡지를 발행하여 재독한인의 동향과 국내외 소식을 전했다. 김갑수를 비롯한 회원들은 고학생이었지만, 임시정부를 지원하며 대외 선전 활동을 펼쳤고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일제의 억압을 세상에 알리는가 하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우회는 1923년 10월 12일 일제의 관동대학살을 폭로하고자「한인 학살」과「동포에게 고함」제목의 전단을 제작하여 유럽뿐 아니라 미주, 임시정부 등지에 뿌렸다.

김갑수는 1926년 학업을 마쳤지만, 임시정부가 유명무실한 상태였기에 상하이로 가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귀국 후 그는 이상재 권유로 7개월여 동안 배재학교 교감을 지내다가, 북간도로 망명하여 동흥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 그곳에서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했던 그는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하였던 윤건중尹建重의 권유로 1927년 귀국하였다. 그는 전북 완주군 봉동에 윤건중이 설립한 봉우산업조합 이사로 참여하여 민족자본 육성과 임시정부 자금 마련에 진력하였다. 하지만 그는 불의의 부상과 과로로 얻은 늑막염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1938년 8월 15일 45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 일제와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던 황진남

황진남은 김갑수·이의경과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았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 황명선을 따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자랐다. 그는 미 감리교 선교부가 운영하던 오아후섬의 한인기숙학교(6년제)에서 수학하였고, 호놀룰루 마노아벨리 중앙태평양학교(중학 과정)를 거쳐 1916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캘리포니아대학 광물학과에 입학했다.



©독립기념관

도산 안창호와 황진남

그가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안창호의 역할이 컸다. 그는 재학 중 1917년 3월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중앙총회(회장 안창호)에 가입하면서 안창호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남다른 애국심을 키워온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나랏일에 한 부분을 돕고자" 한다며 자퇴하고 캘리포니아 각지를 돌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유세하였다.

1919년 5월경, 그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통신원으로 안창호·정인과鄭仁果와 함께 상하이로 건너왔다. 이후 그는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안창호 비서, 임시의정원 미주 의원, 외무부 참사 등을 역임했다. 이런 중에 1920년 5월경 미국 상·하원의원이 '관광단'을 구성하여 필리핀·홍콩·상하이를 거쳐 8월경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때 임시정부는 선전을 통한 외교활동에 힘을 쏟았다. 안창호가 '미의원주비위원회'를 구성하자 황진남은 그를 도와 준비를 철저히 했고, 임시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미 의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안창호와 황진남은 1920년 7월 31일 미의원단이 상하이에 도착하기 전 방문 예정지였던 홍콩을 찾았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미 의원단은 8월 5일 곧장 상하이로 들어갔다. 이에 안창호·황진남 등은 서둘러 상하이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떠난 다음 날이었다. 이후 안창호·황진남 등은 미 의원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인 8월 14일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8월 16일부터 5일 동안 미 의원들을 만나 줄곧 한국이 독립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 의원들의 한국 독립 원조 약속은 어디까지나 '구두상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했다.

황진남은 1921년 2월 임병직과 함께 상하이를 떠나 프랑스로 향했는데, 그곳 파리위원부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려 하였다. 그런데 그해 5월경 돌연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대학에 입학하여 고학으로 철학을 전공하였다. 김갑수가 독일에 유학길에 올랐던 시점과 비슷하였다. 재학 중에 황진남은 아인슈타인과 상대성이론에 관한 두 에세이를 『동아일보』에 실기도 했다. 1923년 10월 그는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많은 한인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에서 일본의 유혈 통치」 제목의 독일어와 영문 전단지를 제작하여 해외 한인사회와 각국 정부 및 기관에 배포하여 일제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며 이를 성토하였다.

졸업 후 황진남은 1925년경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소르본대학에 입학하여 수리학數理學을 전공하였고, 이때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였다. 졸업 후에도 파리에 머물다가 1938년 9월 국내에 귀국하여 고향 함흥에서 프랑스인 부인과 함께 살았고, 1944년에는 당시 설립한 함흥의학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생활하였고, 다음 해 해방을 맞았다.

이후 황진남은 상경하여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동맹에 가입, 비서로 활동하였다. 그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외무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1948년 3월 사임하였다. 이후 그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번역과 통역을 담당하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육군성 소속으로 일본 도쿄로 건너가 활동하던 중 1970년 5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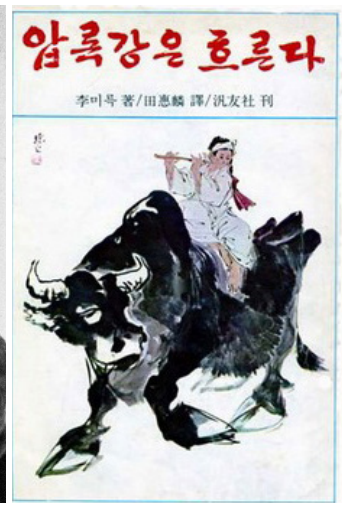
## 독일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한국을 알린 이의경

이의경은 이미륵李彌勒(Mirok Li)으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해주에서 상인으로 성공한 천석꾼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는 해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진학했다. 그가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은 1919년 재학 중 3·1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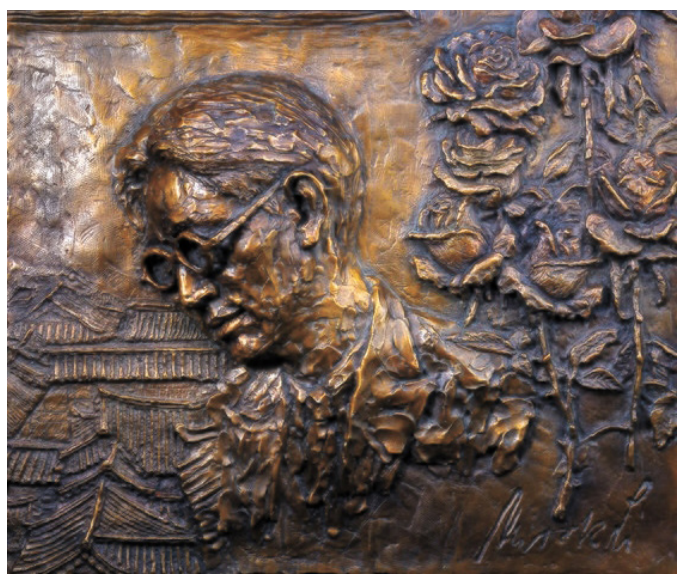
이의경




이의경 『압록강은 흐른다』

1919년 6월, 그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에 입단했다. 청년외교단은 임시정부에 국내 상황 통보, 독립운동 자금 모집·전달, 독립 여론 조성 목적의 각종 인쇄물 작성·반포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의경은 편집부장으로서 1919년 8월 28일 국치기념일에 맞춰 『외교시보』를 인쇄해 서울과 각지에 유포해 국내·외 정세를 알렸다. 하지만 그해 11월 말 일제 경찰에 청년외교단 활동 정보가 노출되어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자, 이의경은 상하이로 망명하였고 그곳 대한적십자대에 들어가 간호사를 교육했다.

1920년 5월, 그는 안봉근과 요셉 빌헬름 선교사의 도움으로 독일로 건너갔다. 그는 김갑수보다 먼저 뷔르츠부르크대학에 입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독일 뮌헨 교외 그래펠핑시 '쿠르트 후버 거리'에 세워진 이의경 기념 동판



©독립기념관

벨기에 브뤼셀 세계피압박민족대회가 개최되었던 에그몽 궁전 입구

## 임시정부 독일 유학생으로 꿈을 펼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

김갑수·황진남·이의경 등은 1920년대 초 임시정부가 파견한 독일 유학생이었다. 이들은 고학하면서 베를린의 여러 대학에서 물리학·철학·의학·동물학 등을 배우며 독립한 조국의 인재가 되기를 꿈꿨다. 이들은 유덕고려학우회에서 활동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하거나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제의 악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가 하면,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한국 독립의 정당성·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독립은 쉽게 오지 않았다. 김갑수·황진남은 고국으로 돌아왔건만, 일제 통치하에서 자신들의 포부를 맘껏 펼치지 못했다. 다만, 그들이 독일에 남겨 놓은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지워지지 않고 후세에 이어져 한국과 독일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학하였고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모두 중퇴하고 1925년 뮌헨대학 동물학과에 편입해 졸업했다. 그는 김갑수·황진남과 달리 졸업 후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1927년 10월 뮌헨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는 재학 중 벨기에 브뤼셀 에그몽 궁전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 반제국주의대회'에 참가하여 21개국 174개 단체 대표단 앞에서 일제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성토하고 한일병합조약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임시정부를 인정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의경은 1928년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그는 1931년 독일 문예지 *Die Dame*에 최초의 단편 소설 『Nachts in einer koreanischen Gasse(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뮌헨대학 교수 쿠르트 후버와 많이 교류하였다. 그런데 후버 교수가 1943년 반나치 저항 활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자, 그는 당대의 가장 고귀한 사람을 잃었다며 탄식했다. 이후 후버 교수의 가족들이 연좌제와 감시에 시달리고 전시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배급품을 그 가족에게 나눠주는 등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돌봤다. 또한 그는 반나치 지식인들과도 교류하였고 나치를 비판하곤 했다. 이렇듯 이의경은 일제뿐 아니라 나치 독일에 저항하였던 몇 안 되는 지식인이었다.

1946년 이의경은 자서전적인 소설 『*Der Yalu fließt*(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책을 출판했다. 당시 이 책은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으로 선정되었고 독일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 그는 1948년부터 뮌헨대학 동양학부에서 한국학과 동양철학을 가르치던 중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타계했다.



©독립기념관

독일 베를린 유덕고려학우회가 있었던 건물 입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증언한 『중한외교사화中韓外交史話』

— 글. 은정태(역사디자인연구소 소장)




『중한외교사화』(석린 민필호石麟 閔弼鎬 편編, 충칭重慶, 동방출판공사東方出版公司,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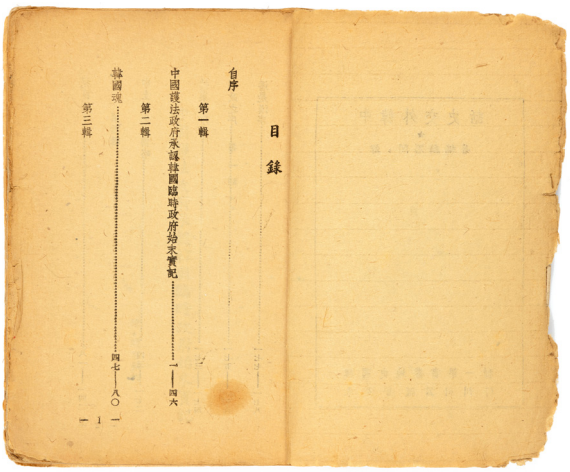


민필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충칭을 마지막으로 27년간 중국 각지를 떠돌아다녔다. 중국에서 임시정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두 도시가 상하이와 충칭이라면, 광저우廣州는 임시정부 초기의 대중국 외교 기틀을 마련한 도시이다. 임시정부는 1921년 5월 광둥廣東에서 수립된 손문孫文의 호법정부를 상대로 외교 특사 신규식申圭植(1880~1922)을 파견해 임시정부의 승인 및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때의 논의 결과는 이후 중국 국민정부의 기본방침으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전후 외교 활동 및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중국 혁명가들과의 교류를 증언하는 기록이 『중한외교사화中韓外交史話』이다. 이 책은 1942년 충칭에서 중문으로 출간된 것으로 1921년 당시 신규식을 수행하였고, 또 사적으로는 신규식의 사위이자, 임시정부의 살림을 도맡았던 독립운동가 민필호閔弼鎬(1898~1963)가 저술, 편집하였다.

당시 임시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5천 권을 인쇄하여 각지로 3천여 권을 보내고 중국 조야朝野로부터 찬사를 받았는데 한국혼의 정신에 탄복하였다고 한다. 남은 1천여 권은 광복 후 한국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폭격으로 모두 불탔다고 한다.


目錄

自序

第一輯 中國護法政府承認韓國臨時政府始末實記……一—四六

第二輯 韓國魂

第三輯 兒目淚……四七—八〇

第四輯 申圭植先生傳略

附錄 拙巢子序 胡政之序 潘是漢序

## 구성

『중한외교사화』는 크게 서문, 1~4집,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自序
第一輯 中國護法政府承認韓國臨時政府始末實記
第二輯 韓國魂
第三輯 兒目淚
第四輯 申圭植先生傳略
附錄 拙巢子序 胡政之序 潘是漢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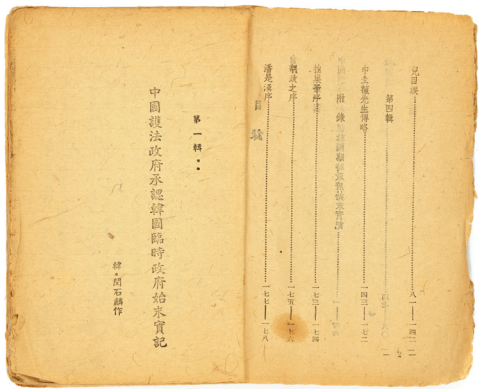
서문에 책을 편집, 간행하게 된 동기를 밝혔는데, 국민당의 호법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을 표본으로 삼아 현재(1942)의 임시정부 미승인이라는 난관을 극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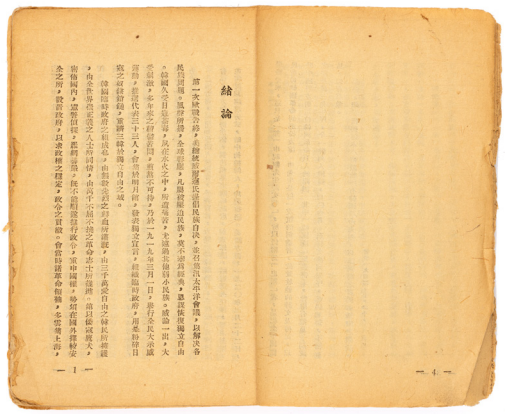
제1집은 1921년 임시정부 외무총장 신규식이 손문의 호법정부를 상대로 벌인 외교를 기행문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필호가 집필한 것으로, 임시정부의 초기 외교정책 연구에서 많이 인용하는 저술이다. 제2집은 신규식이 1916년에 집필한 것으로 굳은 독립운동 의지를 드러내며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3집은 신규식의 한시집으로 모두 160여 수가 수록되어 있다. 제4집은 제목 그대로 신규식의 생애사인 셈이다. 부록은 2집「한국혼」의 서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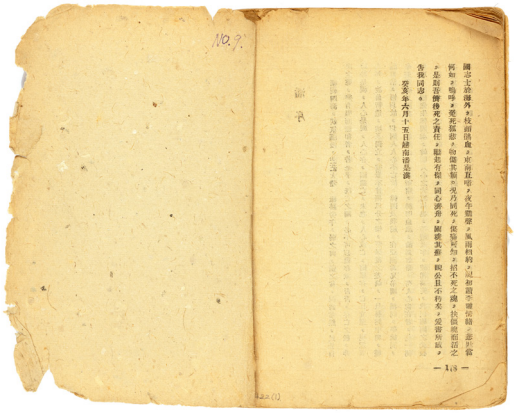
이 책을 집필, 편찬한 것은 충칭 임시정부의 외무차장으로 있던 민필호가 1940년대 초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독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중국의 국부인 손문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였는데 국민정부가 왜 승인을 꺼리는가를 지적하여 중국의 여론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당초 민필호가 지은 책 이름은 '『중한외교사화』'가 아니라 제1집의 제목인 '『중국호법정부승인한국임시정부시말실기中國護法政府承認韓國臨時政府始末實記』'였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외교 증언

제1집은 1921년 손문의 광둥 호법정부를 상대로 신규식의 외교활동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 임시정부는 성립 후 미·영·불·중 등의 국가의 동정을 얻고 나아가 각국 정부와 접촉해 정식 승인을 얻고자 하였다. 이 중 가장 먼저 노력한 것은 중국의 승인이었다. 또 1921년 11월에 개최될 태평양회의(워싱턴회의)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 한국 문제를 회의에 제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를 위해 신규식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을 전권특사로 파견하였고, 그는 국서를 휴대하였다. 이것은 임시정부의 첫 특사파견이었다. 이때 외무차장 대리 겸 외사국장 박찬익朴贊翊이 부사로, 민필호가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신규식은 광둥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한 '대한민국임시정부경고중화민국각계제군자서大韓民國臨時政府敬告中華民國各界諸君子書'를 발표하였다. 인도주의적 입장, 세계평화를 위해, 중국이 일본과의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분명하게



밝힌 국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과 순치脣齒의 관계로 일본의 중국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제1집은 3·1운동 후 성립된 임시정부가 각국으로부터의 협조와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이 나오게 된 배경 소개, 광둥의 호법정부와의 외교 기록, 다양한 인사들과 면담록, 동시에 광둥 및 마카오 등지의 기행기 성격을 지니고 있다. 9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이동 중에 홍콩, 광저우, 마카오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

10월 3일 손문을 만난 신규식은 임시정부와 호법정부의 상호 승인, 한국학생의 중국 군관 학교 수용, 차관, 독립군 양성에 필요한 조차租借 허용 등을 제시했다. 손문은 차관과 조차지 허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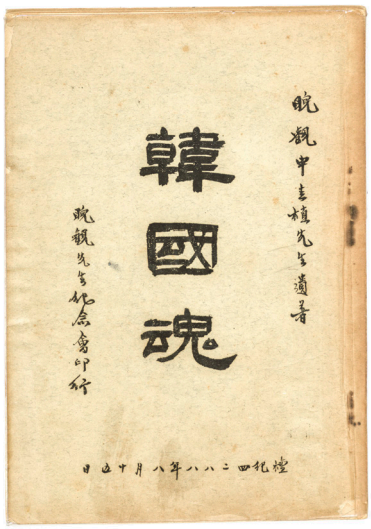
신규식의 광둥 호법정부 방문과 교섭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호법정부로부터 '사실상' 승인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1922년 2월 호법정부 광둥 주재 임시정부 대표로 박찬익이 파견되었고, 1921년 9월 광둥에서의 중한협회中韓協會 결성, 이듬해 9월 상하이에서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가 결성될 수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 황포군관학교 등 무관학교로 학생 파견, 임시정부 외교활동 지원 등을 국민정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다.

손문은 호법정부 자체가 아직 광둥성이라는 한 부분만을 장악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승인을 얻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신규식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북벌계획이 완성되면 전력을 다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원조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계자인 장개석蔣介石의 중국국민당 정부도 손문의 뜻을 받들어 나갔다. 그런데 손문을 비롯한 중국 혁명파 지도자들은 전통적 중국 중심주의 내지 중화주의적 입장에서 한국독립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담 과정에 열국에 의한 "시모노세키조약 불승인"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청일전쟁에서의 청조의 패전을 인상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 한국 멸망의 원인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한 「한국혼」

제2부 「한국혼」은 신규식의 유작으로 민족주의를 각성시켜 독립의지를 고취시킬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한국혼」은 1912년 동제사 설립 당시 연설했던 것을 모아 1914년에 탈고했으며, 1920년 상하이에서 창간한 『진단震壇』의 '통언痛言'란에 연재하였으며, 그래서 「한국혼」을 일명 「통언」이라고도 하였다. 1939년 충칭에서 중문으로 초판을 간행하였고, 1955년에는 대만에서 증보판이 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중한외교사화』의 부록으로 있는 세 편의 서문은 모두 「한국혼」의 서문에 해당한다. 상하이에서 의사이자 문학가로 활동했던 졸소자拙巢子(1868~1937, 조영보曹穎甫), 언론인으로 『대공보大公報』 창립자 중의 하나인 항일언론인 호정지胡政之(1889~1949, 호림胡霖),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광둥에서 베트남유신회를 조직한 베트남 혁명가이자 『월남망국사』로 널리 알려진 반시한潘是漢(1867~1940, 반패주潘佩珠(Phan B i Châu)) 등이 이들이다. 부록의 집필 시기는 모두 상이하여, 졸소자의 서문은 1916년 3월이고, 호정지의 서문은 1923년 9월, 반시한의 서문은 1923년



『중한외교사화』의 제2편 「한국혼」

6월이다. 특히 호정지는 「한국혼」을 신규식의 '영혼 불멸한 결정체'라고 하였다.

『중한외교사화』의 서문에 민필호는 「한국혼」을 '한국인에게 고하는 서書'로서 독일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 미국의 노예해방선언이나 남송의 문천상文天祥이 원나라에 끝까지 항전하여 옥중에서 지은 '정기가正氣歌'와 비견된다고 하였다.

신규식은 1909년 대종교에 입교했다. 국망의 원인을 선조와 교화 및 종법宗法을 잊고, 이순신이나 거북선과 같은 선조들의 공렬功烈과 이기利器를 잊고, 국사國史를 잊고, 국치國恥를 잊은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한국의 부흥은 단군문화와 대종교를 바탕에 두고 교육하여 한국인들의 민족정신 응집, 민족자존 회복, 민족정체성 확립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곧 단군민족주의로서, 임시정부의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단결을 호소하였다. "우리가 진실로 민족주의를 품은 채 조국광복을 핵심으로 삼아 힘써 나아가며 어려움을 피하지 않음에 이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고향, 종파, 남녀노소, 가깝고 멂, 유명과 무명, 개인과 단체, 온건과 급진파, 숨어있던 드러나 있던, 농부와 장인, 상인과 선비 등 계급을 막론하고 모두 우리의 동지이다."라고 하였다.

「한국혼」의 내용은 신규식이 관여한 박달학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 내외의 친우와 교류하며 민족의 치욕과 독립을 각성시켰던 「아목루」

제3집 「아목루兒目淚」는 신규식의 시문이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할 때부터 1922년 사망할 때까지 지은 오언과 칠언의 170여 편을 싣고 있다. 「아목루」는 신규식의 자호自號인 '예관睨觀'의 '예'자를 파자해 '어머니의 나라를 떠난 아이 눈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 민필호는 신규식의 문장에 대해 "선생은 문장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시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는데 그의 시들은 대부분 감정이 격앙되고 비분에 넘치며 정열로 충만된 작품들이었다."라고 평하였다.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상하이로 오기까지의 망명 과정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거나, 생일의 감회, 홍명희, 박은식, 안창호를 비롯한 친우들, 나철 등 대종교 지도자나 손문 등 중국 혁명가들과 우정을 말하거나, 망국인으로서의 울분과 각성, 그리고 해외로 떠나가는 유학생을 격려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고, 또한 동시에 젊은 지사들을 독려하며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때 한국의 역사 유적, 이순신과 안중근을 비롯한 민족의 영웅, 대종교 등의 민족종교 등을 창작의 소재로 삼았다.

1912년부터 문학조직인 남사南社에 참여하면서 지은 시가 다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망명 지식인과 현지 중국 혁명가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만들었다. 신규식은 신해혁명의 시적 형상화, 송교인宋教仁 등 사망한 중국인 혁명가들에 대한 애도, 군벌 및 일제의 중국 침략에 대한 규탄, 중국인들에게 조선 망국을 교훈 삼아 전철을 밟지 말라는 내용을 시로 표현했다.

이처럼 신규식의 한시에서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망국에 대한 애통함, 일제에 대한 강한 분노와 조국광복에 대한 신념, 중국혁명에 대한 상찬賞讚과 변화 기대 등을 담고 있었다.



©독립기념관

동제사의 주요 요원, 왼쪽부터 신채호, 신석우, 신규식

## 신규식의 전기

제4집은 민필호가 정리한 예관 신규식에 대한 간단한 전기이다. 신규식에 대한 연구는 모두 이 글에서 출발한다. 본문에 「한국혼」 간행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칭에서 「한국혼」을 출간한 1939년 이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식의 인품, 한말 국난과 두 차례의 자살 기도,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중국과 혁명교육사업, 애국적 종교관과 고려사高麗寺 수축, 「한국혼」 집필 배경과 의의, 임시정부 승인 획득과 광둥 진형명陳炯明의 반란, 43세의 임종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명교육사업, 대종교의 국교화, 「한국혼」 집필, 임시정부의 호법정부 외교 등이 비중 있게 기술되고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신규식의 가장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특히 망명 직후부터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만들어 송교인, 호한민胡漢民, 요중개廖仲愷 등 중국 혁명운동가들과 교류하여 후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과 운영에 밑돌을 놓을 수 있었다. 또 다양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박은식, 김규식, 신채호 등과 동제사(1912)를 조직해 많은 동지들을 불러 모았다. 또 박달학원을 개설하고는 청년들에게 군사훈련과 문화교육을 시켜 많은 청년들을 미주나 유럽, 중국 등의 대학과 군사학교에 보냈다. 또 이처럼 신규식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전까지 상하이 망명인사들의 중심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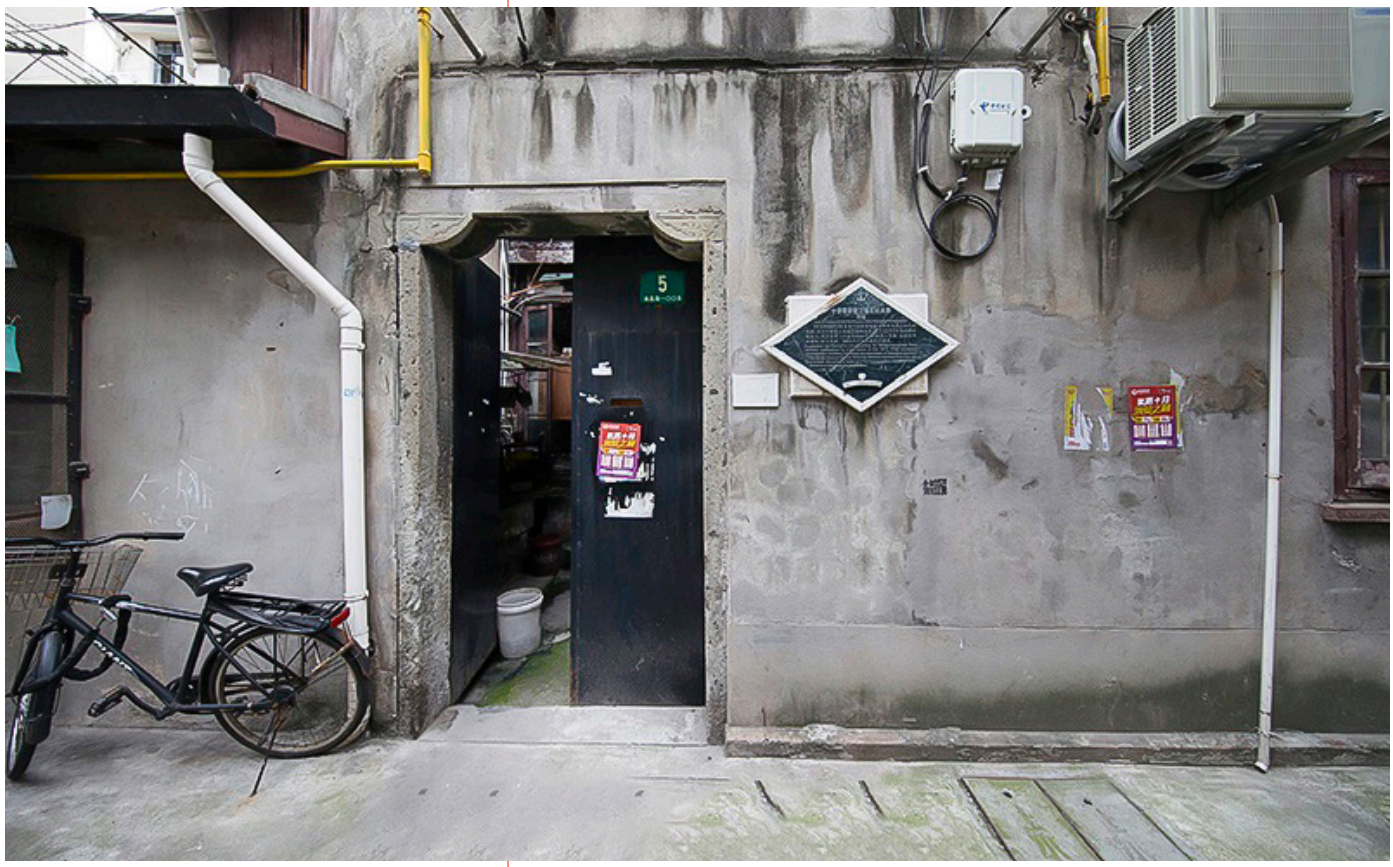
『중한외교사화』는 충칭 임시정부의 외사국장이었던 민필호가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1942년 충칭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장개석 정부에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편집, 간행하였다. 그래서 21년 전 광둥에서 신규식과 손문의 외교교섭에서 양국 정부 승인 및 중국 정부의 지원을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간행 과정에 신규식의 유고 성격의 글들인 「한국혼」과 「아목루」가 취합되었고, 여기다 「신규식약전」이 덧붙여지면서 장인 신규식의 생애를 총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단행본으로 묶이게 되었다.

『중한외교사화』는 상하이와 광둥에서 신규식의 역동적인 활약만큼이나 많은 후속 자료간행과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다. 임시정부의 초기 외교교섭을 비롯하여, 신규식의 상하이 망명자들에게 대한 혁명교육과 제 단체와의 관련성, 신규식과 대종교의 관계, 신규식과 임시정부의 관계 등이 연구되었고, 망명 인사의 고뇌를 한시를 통해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의 신문자료, 일본공사관 기록, 임시정부의 공식기록 등을 참고하여 『중한외교사화』를 비판적으로 수정, 보완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중한외교사화』는 중국 남부 상하이와 광둥에서 신규식을 비롯한 해외 망명인사들이 중국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을 연계해 접근하려 했던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기록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金俊燁 編,『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 閔石麟 編,『中韓外交史話』, 重慶, 東方出版公司, 1942
· 石源華 金俊燁 共編,『申圭植 閔弼鎬와 韓中關係』, 나남출판, 2003
· 예관신규식전집편찬위원회,『예관 신규식 전집』, 2019
· 강영심,「신규식의 생애와 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1, 1987
· 김희곤,「신규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중원문화연구총서』13, 2009
· 배경한,「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10~1945)」『중국근현대사연구』56, 2012
· 성주현,「남파 박찬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사학연구』97, 2010,
· 신운용,「신규식의 민족운동과 대종교」『국학연구』23, 2019
· 이금선,「신규식 '한국혼'의 판본 및 번역판본의 연구」『열상고전연구』42, 2014
· 이재호,「대한민국 임시정부의 護法政府와의 외교관계 검토」『한국독립운동사연구』52, 2015
· 진옥경,「독립지사 신규식 한시집 아목루 연구(1) - 작품 계년과 해설을 중심으로」『중국문학』108, 2021


©독립기념관

1911년 신규식의 상하이 망명 후 거주지

#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사

— 글. 소병국(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의 독립운동'에서는 대한민국과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독립운동〉이라는 동일한 역사 경험을 공유하여 세계사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가치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와 각 나라가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을 보고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이유를 돌아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편집자-

현재 인도네시아공화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이어진 섬나라로 17,000개 이상의 섬이 있으며 세계에서 14번째로 넓은 나라이자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주요 교역 통로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끊임없는 민족운동으로 독립을 추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디포네고로 전쟁

18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네덜란드는 전쟁 중에 영국에 망명 정부를 세우고 위탁했던 자바의 영토를 반환받았다. 이때부터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민 지배에 착수하면서 자본



자바 전쟁이 끝난 후 디포네고로 왕자가 체포되는 모습 기록화

주의 시장 경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자 자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자바의 임대차 관습법이 흔히 무시되어 많은 귀족과 농민의 반발을 샀다.

이즈음에 인도네시아 역사상 손꼽히는 위인인 디포네고로가 자바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자바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마따람 왕국의 장자 왕자로서, 그리고 이슬람 신비주의자로서 자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디포네고로 주위에 추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825년 디포네고로가 반反네덜란드 봉기를 일으키자, 네덜란드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농민, 귀족과 이슬람 지도층이 동참했다. 봉기는 욕야까르따에서 발발해 곧 중부와 동부 자바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1830년 3월에 디포네고로가 체포되어 술라웨시의 마까사르로 추방되면서 그 기세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그는 1855년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근대 민족주의 운동이 태동하기 이전에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착수에 대한 인도네시아 전통 세력의 저항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1825~1830년까지 5년간 지속되었던 이 봉기를 '자바전쟁' 또는 '디포네고로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전쟁을 계기로 자바 전역에서 확고한 지배권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이제 이 지역을 발판삼아 인도네시아군도 전역으로 식민지 확장을 준비하게 되었다.

## 이슬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인도네시아 근대 민족주의 운동은 중국인에 대한 경제 투쟁을 내세운 이슬람 단체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09년에 전직 공무원인 띠르또아디수르요가 바타비아(지금의 자까르따)에서 '사레깟 다강 이슬라미야(무슬림 상인 연합회)'를 설립했다. 바띡(전통 방식으로 염색한 천) 산업에 종사하는 자바의 토착 자산가 단체로서 그 설립 목적은 당시 바띡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인에 맞서는 것이었다.

1911년 띠르또아디수르요의 권유로 사만후디가 수라까르따(지금의 솔로)에서 '사레깟 다강 이슬람'(이하 SDI)이라는 또 하나의 토착 자산가 단체를 만들었다. SDI는 이어 오마르 사잇 쪼끄로아미노또에 의해 '사레깟 이슬람'(이하 SI)으로 재건되었다. 이후 SI는 중국인과의 경제 투쟁을 넘어 식민 정부에 자치를 요구하는 정치 투쟁으로 그 노선을 변경했다. SI는 오마르 사잇 쪼끄로아미노또의 지도력 하에 1920년대 초까지 인도네시아 자치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은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노동 운동 지도부 가운데 종전 인도네시아 반식민지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상 즉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은 네덜란드인 공산주의자인 스네이블리트에 의해 처음 유입되었다. 1914년 5월 그는 수라바야에서 동인도사회민주연합(이하 ISDV)을 창설했다. 1917년에 100여 명 정도의 인도네시아인이 가입했다. 그들 중엔 뒤에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공산주의자가 되는 스마운·딴 말라까·무쏘·다르소노 등 젊은 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1920년 5월에 ISDV를 '동인도공산주의자연합'으로 개칭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공산당(1921년)보다 일찍 아시아 최초의 공산당이 인도네시아에서 탄생했다. 그들은 4년 뒤 당의 명칭을 인도네시아공산당(이하 PKI)으로 변경했다.

1925년에 접어들며 여러 도시에서 PKI가 주도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1926년 11월~1927년 1월 초에 PKI는 서부 자바와 수마뜨라의 미낭까바우에서 여러 차례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 일련의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르소노 등 PKI 간부와 노동 운동 지도자들을 포함해 약 1만 3000명이 체포·투옥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첫 번째 반식민주의 무력 투쟁은 실패로 끝나면서 PKI는 거의 괴멸되었다.

1920년대에 이슬람과 공산주의 색채를 띠지 않은 이른바 '세속적' 민족주의 단체들이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나타났다. 국외에선 모함마드 하따를 위시한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이던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주축을 이뤘다. 그들은 1922년에 민족주의 정치단체인 인도네시아협회(이하 PI)를 출범시켰다. 한편 이 무렵 국내에선 수까르노가 그와 유사한 민족주의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1925년 수까르노는 찝또 망운꾸수모와 함께 반둥스터디클럽을 결성했다. 1927년 7월 4일 이 클럽의 주도로 서부 자바의 고원 도시인 반둥에서 인도네시아국민협회가 결성되었다. 1928년 5월 이 협회는 인도네시아국민당(이하 PNI)으로 개칭했다.

PNI는 인도네시아 통합을 도모하고, 식민 당국과 타협·협력을 하지 않으며, 대중 운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민족주의를 고양해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그 투쟁 목표로 정했다. 1929년 말까지 PNI의 당원이 급속히 증가해 그 수가 1만 명에 달했다. 1929년 12월 식민 당국은 수까르노를 비롯해 PNI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수까르노는 공공질서를 해쳤다는 죄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반둥의 수까미스낀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PNI는 식민 당국의 강력한 탄압을 예상하고 1931년 4월 자진 해산했다. 네덜란드 유학생 집단은 1931년 12월에 PNI의 자진 해산을 비난하며 인도네시아국민교육, 약칭 PNI-Baru(새로운 PNI)를 설립하고 하따를 당수로 추대했다. 1934년 2월에 모함마드 하따도 체포되어 파푸

아의 보벤 디굴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처럼 식민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1934년 말까지 반식민주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구금되었고, 비타협을 지향하던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운동은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 설 땅을 잃게 되었다.

## 민족주의 운동의 새로운 전기

중일전쟁(1937~1945)의 장기화로 석유·주석·고무 등 전략 물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일본은 새로운 공급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선을 동남아시아로 돌렸다. 그 중 전략 물자 보고인 인도네시아군도가 그들의 주요 관심 지역이었다. 일본은 1942년 3월 8일 동부 자바의 깔리자띠에서 네덜란드 총독의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 점령을 마쳤다.

1943년 초부터 전세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군정은 준準군사 조직을 만들어 대중 동원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해 4월에 보조군인 헤이호(병보兵補)가 조직되었고, 유사한 조직이 연이어 생겨났다. 10월에 약칭 뻬따로 불리는 조국방위군이 창설되었다. 또한 일본은 각종 협회를 구성했다. 1943년 10월 인도네시아무슬림협회(약칭 마슈미)가 창립되었다.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 군정은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독립'이란 미끼를 던졌다. 이에 1945년 3월 그들은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이하 BPUPKI)를 설립했다. 5월 말 BPUPKI의 첫 번째 회합이 자까르따에서 열렸다. 수까르노와 모함마드 하따 포함해 참석자들은 이 회합에서 향후 이슬람 국가가 아닌 세속 국가를 세우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수까르노는 한 연설에서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핵심 국가 이념인 다섯 원칙 즉 빤짜실라(인도네시아의 통일, 공정하고 문명화한 인본주의,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사회 정의, 유일신에 대한 믿음)를 발표했다.

1945년 8월 6일 수까르노와 하따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는 독립 준비 실무 위원회가 발족했다. 하지만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그동안 일본과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 지도자들이 논의해왔던 모든 독립 준비 계획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급진적인 청년 집단은 즉각 독립을 선포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수까르노는 8월 17일에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했다.

## 성공한 독립 혁명

1945년 8월 17일 독립 선언에 이어 8월 말 자까르따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네덜란드의 복귀가 임박하자 공화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기 시작했다. 일단 투쟁보다는 협상을 염두에 두고 1945년 11월에 친네덜란드 인사인 수딴 샤흐리르를 내무 장관과 외무 장관을 겸한 수상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1946년 11월 15일에 수딴 샤흐리르와 네덜란드가 링가자띠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골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주권을 자바·마두라·수마뜨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배권을 인정하며, 양측은 1949년 1월까지 네덜란드연방의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공화국은 군도의 일부만을 차지하는 소小국이 되었다. 이 굴욕적인 협정의 여파로 결국 1947년 6월 26일 수딴 샤흐리르는 수상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또 다른 친네덜란드 인사인 아미르 샤리푸딘이 새로운 수상이 되었다. 그러자 7월 20일 네덜란드는 15만 명 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1948년 1월 아미르 샤리푸딘은 자까르따의 딴중 쁘리욱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 군함 렌빌에서 네덜란드와 정전 협정을 체결했다. 이른바 '렌빌협정'은 인도네시아공화국에게 네덜란드연방 내의 한 주권국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 네덜란드연방 내에서 자바와 수마뜨라의 일부를 다스리는 일개 지방 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협정의 후폭풍으로 아미르 샤리푸딘 내각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 같은 정치적 위기는 수까르노와 모함마드 하따를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하게 만들었고, 모함마드 하따를 수상과 치안 장관으로 하는 비상 내각이 발족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하는 수카르노 (1945. 8. 17.)



국기를 들고 독립기념행사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청년들 (2023. 8. 17.)

1948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약진이 목도되었다. 내전 중인 중국에서 공산당군이 국민당군을 압도하기 시작한 데다, 소련의 베를린 봉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 등이 서구 자유주의 진영을 긴장케 했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9월 초에 전후에 재건된 인도네시아 공산당 지지자들이 동부 자바의 마디운을 점령하고 인도네시아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했다. 이에 대한 수까르노의 결정은 단호했다. 9월 말 인도네시아 공화국 군대의 주축인 실리왕이 사단이 마디운으로 진격해 치열한 전투 끝에 공산당 세력을 진압했다.

이른바 '마디운 쿠데타'는 특히 국제적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 사태는 당시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가 약진하던 가운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반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을 서방 세계에 분명히 각인해 주었다. 이 쿠데타 진압을 기점으로 그동안 수까르노를 사회주의자로 의심해온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이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1948년 12월 10일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이 무렵 네덜란드의 무력 행동은 국제 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미국은 네덜란드에 대한 원조를 연기하고, 마셜플랜에서 네덜란드를 제외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1949년 8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원탁회의에 따라 12월 27일 수까르노와 하따를 각각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한 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독립 혁명이 결실을 맺었다. 요약하면, 독립 투쟁 운동의 내적 동력과 유리한 국제 환경이 결합되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 하리 머르데까

매년 8월 17일이 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리 머르데까'(독립기념일)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엄숙한 광복절보다는 축제 분위기가 난다. 특히 국기('상 메라 단 뿌띠') 색상으로 매치한 빨갛고 하얀 옷을 입고 흥겹게 이벤트를 벌이는 장면이 이채롭다. 아마도 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다는 그들의 자부심의 발로인 듯하다.

연구교육과

# 2024년 제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기념관에서 운영한 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탐방단 총 20명을 선발하여 6.1.(토) ~6.10.(월)에 9박 10일 동안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탐방지역은 중국 상하이, 자싱,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충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경로에 따라 사적지 탐방이 진행되었고 탐방 현지에서 탐방 참여 체험프로그램인 독립신문 만들기, 도전! 임정골든벨, 탐방단 서명포 및 인물카드 꾸미기, 세미나 등의 워크숍도 함께 이루어졌다. 탐방 미션으로는 조별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였다.

이번 1차 국외 대한민국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사적지 현장에서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사람들의 흔적과 역사를 체험함과 동시에 전문 역사강사,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의 설명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동시기를 직접 겪은 임시정부 요인의 회고록을 주제로 한 학예연구사의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의 호기심과 참여도를 극대화하고 탐방에 대한 관심을 임시정부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탐방은 '울림'을 주는 탐방이었다. 탐방을 하며 '임시정부를 느끼며 빼앗긴 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건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울림을 받았다. 임시정부의 위대한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하이



류저우



## 사적지 탐방 순서

자싱, 항저우





난징



이번 국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많은 노력들을 9박 10일 동안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창사



정말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적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광저우







정말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적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소수의 인원과 전문가가 동행해서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노고에 대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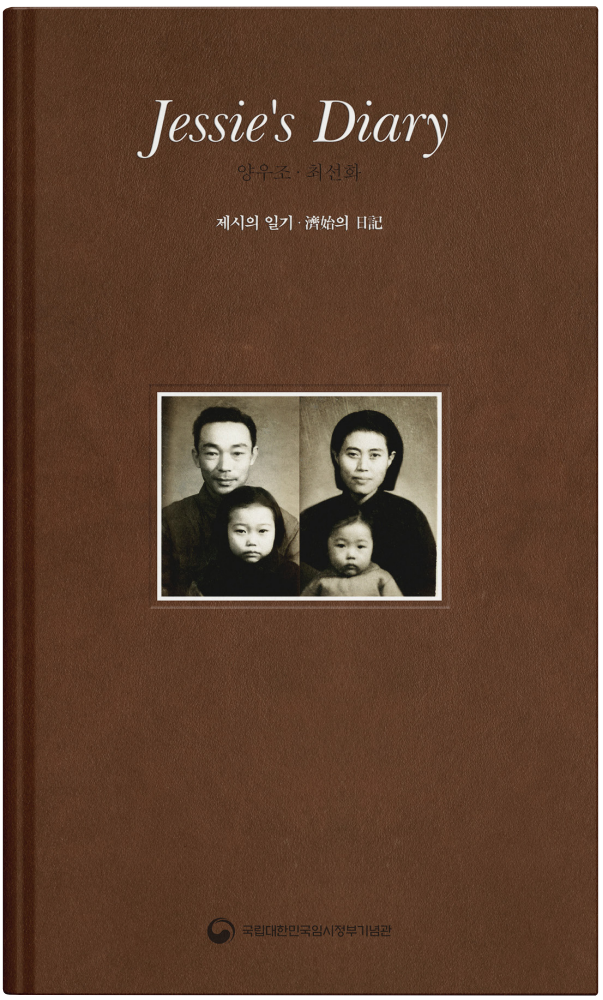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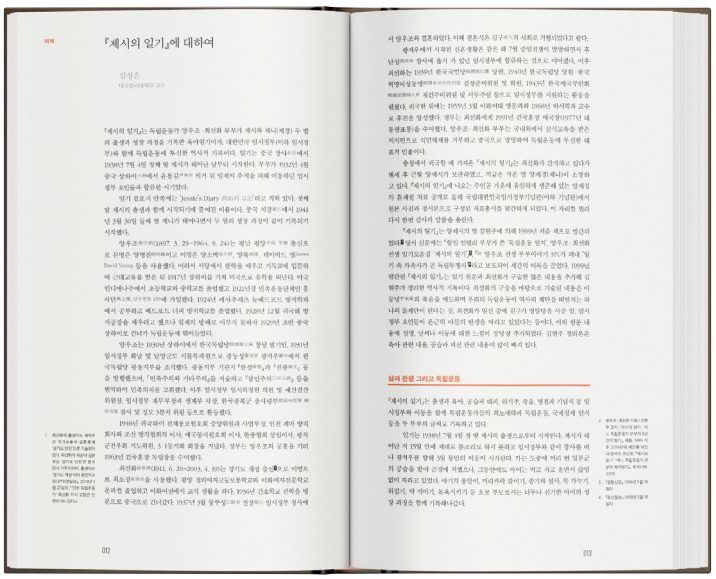
사진 출처 이세현

연구교육과

##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총서 제4집 - 『제시의 일기』 발간

기념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총서 4집 『제시의 일기』를 발간하였다. 제시의 일기는 임시정부에서 생계부 차장 등을 역임한 양우조와 충칭 한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한 최선화 부부 독립운동가가 쓴 두 딸의 육아일기이자 임시정부 활동 기록이다. 첫째 딸인 제시가 태어난 1938년 중국 호남성 창사長沙에서 쓰기 시작하여 광복 후인 1946년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제시와 제니(제경) 두 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 가족들의 삶,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날 그날 직접 보고 느낀 임시정부 요인들의 희로애락과 독립운동 상황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번 자료총서는 임시정부 생활사이자 독립운동 자료인 제시의 일기 원본을 모두 촬영하여 활자본과 같이 실음으로서 독자들이 더욱 실감 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념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편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시의 일기』에 대하여





백날을 맞은 제사요

1938. 10. 12.

차저가서 사진을 직고는 언이듯 점심때가 되였음으로 양식(洋食)과 당식(唐食)의 음식을 어린 J.를 누워 노코 배불리 먹고 중산공원을 구경하고 최소로 도라온 즉 로(老) 선생님의 四五 분과 부인네며 어린이들이 十여 명이나 오섰음으로 여간 과실로 대접하였다. 그중에는 J.의 百일 마지를 축하하는 분도 있엇다。J.는 아모런 철이 없지만 백일이라고 해서인지 경폐한 태도로 긔분이 조와서 잘 놀고 있다。

十二日에 원군(日軍)이 광동 담수(淡水)[6] 등 지방에 등록하였어 물밀 듯 쳐드러오매 一주일 내외에 광주시와 부근 각 현진(縣鎭)의 위협을 늣기여 성정부(省政府機関)긔관과 갗어 우리 긔관도 피란케 되엿어 배는 준비가 되였으나 불산현(佛山縣)에 잇은 一부 우리의 피란이 문제가 되엿어 걱정하다가 간신ᄉᆞ히 二十日 아

6. 원문에는 '담수(淡水)'로 되어 있으나 '담수(潭水)'의 오기로 보인다.

1938. 10. 20.

츨 三시 반에서야 四五日 동안 싸게였다 푸렀다 하는 행리[7]를 긔차 정거장으로 운반하여 가지고 위선 삼수(三水)[8]까지를 갈 작정으로 광삼차(廣三車) 불산 정거장으로 나오게 되였다。

三수을 향하여 떠나는 긔차는 매일 매 시간에 한 번식 있겠마는 살도 하여[9] 륌중된 피란민은 千이요 만 명 이나 더 되리 만큼 몰녀들어 끌는데 반공에 흐미한 금음달 빛은 일이 내린 찬 이슬에 반사한 광채가 피란민의 옷차락에서 번적이더라. 그렇나 천행이 우리는 장 위원장[10]의 전보에 의한 성정부 명령에 응하여 열장은 전차(全車) 한나를 예비하여 주워서 모든 행리며 J.와 一행 四十여 명은 군색함이 없이 차를 타고 떠나게 되니 때는 十月 二十日 아츰 四시 四十분이더라。

二十日 아츰 十時츰 하여 (三水驛) 삼수역에 거이 도착하려 할 때 공습경보가 나서 차를 멈추고 四면으로 해산되는데 J.도 정거장 서남편에 있는 높다란 탑밑으로 피란하였다。

제사로군운수사령부삼수지부(第四路軍運輸司令部

7. 광동성(廣東省) 후이저우시(惠州市) 후이양현(惠陽縣) 단수이진(淡水鎭)지역.

8. 행리(行李): 여행할 때 쓰는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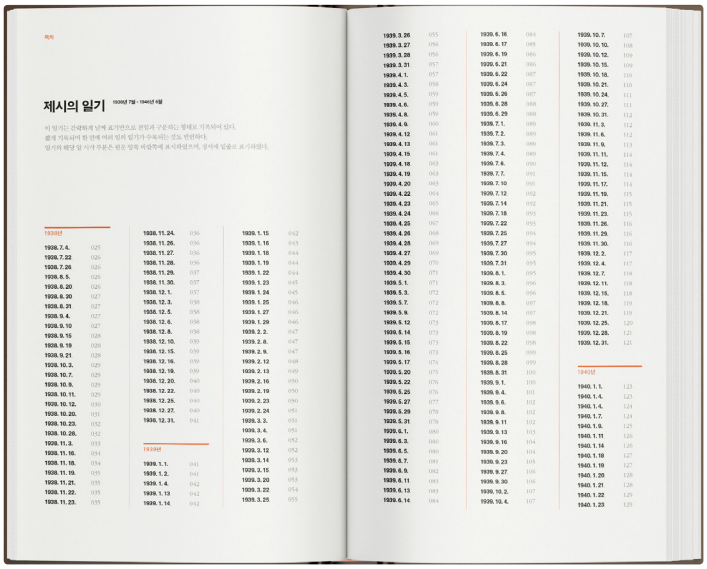
9. 광동성(廣東省) 포산시(佛山市) 반수이구(南海區)

10. "페드(裴宋)하이"의 의미로 보인다.

11. 참제스(蔣介石)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장

030

031



제사

## 제사의 일기 1938년 7월 - 1944년 9월

이 일기는 간략하게 날짜 표기만으로 편년과 구분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몇개 기록되어 한 단락 이라 일기가 수록되는 것도 전단하다.
일기의 해당 일 시작 부분은 원문 일부 마침표에 표시하였으며, 문서에 넘음로 표기하였다.


193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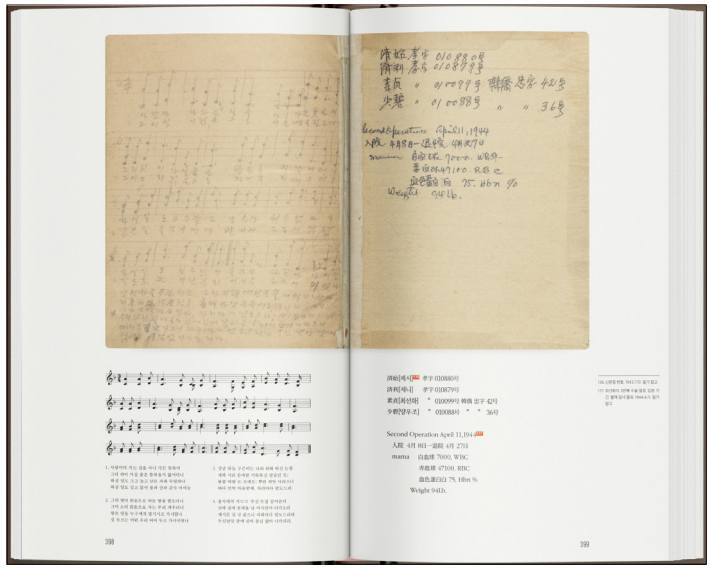
1938. 7. 4. 025
1938. 7. 22 026
1938. 7. 26 026
1938. 8. 5. 026
1938. 8. 20 026
1938. 8. 30 027
1938. 8. 31 027
1938. 9. 4. 027
1938. 9. 10 027
1938. 9. 15 028
1938. 9. 19 028
1938. 9. 21 028
1938. 10. 3. 029
1938. 10. 7. 029
1938. 10. 9. 029
1938. 10. 11. 029
1938. 10. 12. 030
1938. 10. 20. 031
1938. 10. 23. 032
1938. 10. 28. 032
1938. 11. 3. 033
1938. 11. 16. 034
1938. 11. 18. 034
1938. 11. 19. 035
1938. 11. 21. 035
1938. 11. 22. 035
1938. 11. 23. 035
1938. 11. 24. 036
1938. 11. 26. 036
1938. 11. 27. 036
1938. 11. 28. 036
1938. 11. 29. 037
1938. 11. 30. 037
1938. 12. 1. 037
1938. 12. 3. 038
1938. 12. 5. 038
1938. 12. 6. 038
1938. 12. 8. 038
1938. 12. 10. 039
1938. 12. 15. 039
1938. 12. 16. 039
1938. 12. 19. 039
1938. 12. 20. 040
1938. 12. 22. 040
1938. 12. 25. 040
1938. 12. 27. 040
1938. 12. 31. 041

1939년

1939. 1. 1. 041
1939. 1. 2. 041
1939. 1. 4. 042
1939. 1. 13 042
1939. 1. 14. 042
1939. 1. 15 042
1939. 1. 16 043
1939. 1. 18 044
1939. 1. 19 044
1939. 1. 22 044
1939. 1. 23 045
1939. 1. 24 045
1939. 1. 25 046
1939. 1. 27 046
1939. 1. 29 046
1939. 2. 2. 047
1939. 2. 8. 047
1939. 2. 9. 047
1939. 2. 12 048
1939. 2. 13 049
1939. 2. 16 050
1939. 2. 19 050
1939. 2. 23 050
1939. 2. 24 051
1939. 3. 3. 051
1939. 3. 4. 051
1939. 3. 6. 052
1939. 3. 12 052
1939. 3. 14 053
1939. 3. 15 053
1939. 3. 20 053
1939. 3. 22 054
1939. 3. 25 055
1939. 3. 26 055
1939. 3. 27 056
1939. 3. 29 056
1939. 3. 31 057
1939. 4. 1. 057
1939. 4. 3. 058
1939. 4. 5. 059
1939. 4. 6. 059
1939. 4. 8. 059
1939. 4. 9. 060
1939. 4. 12 061
1939. 4. 13 061
1939. 4. 15 061
1939. 4. 18 063
1939. 4. 19 063
1939. 4. 20 063
1939. 4. 22 064
1939. 4. 23 065
1939. 4. 24 066
1939. 4. 25 067
1939. 4. 26 068
1939. 4. 28 069
1939. 4. 27 069
1939. 4. 29 070
1939. 4. 30 071
1939. 5. 1. 071
1939. 5. 3. 072
1939. 5. 7. 072
1939. 5. 9. 072
1939. 5. 12 073
1939. 5. 14 073
1939. 5. 15 073
1939. 5. 16 073
1939. 5. 17 073
1939. 5. 20 075
1939. 5. 22 076
1939. 5. 25 076
1939. 5. 27 077
1939. 5. 29 078
1939. 5. 31 078
1939. 6. 1. 080
1939. 6. 3. 080
1939. 6. 5. 080
1939. 6. 7. 081
1939. 6. 9. 082
1939. 6. 11 083
1939. 6. 13 083
1939. 6. 14 084
1939. 6. 16 084
1939. 6. 17 085
1939. 6. 19 086
1939. 6. 21 086
1939. 6. 22 087
1939. 6. 24 087
1939. 6. 26 087
1939. 6. 28 088
1939. 6. 29 088
1939. 7. 1. 089
1939. 7. 2. 089
1939. 7. 3. 089
1939. 7. 4. 089
1939. 7. 6. 090
1939. 7. 7. 091
1939. 7. 10 091
1939. 7. 12 092
1939. 7. 14 092
1939. 7. 18 093
1939. 7. 22 093
1939. 7. 25 094
1939. 7. 27 094
1939. 7. 30 095
1939. 7. 31 095
1939. 8. 1. 095
1939. 8. 3. 096
1939. 8. 6. 096
1939. 8. 8. 097
1939. 8. 14 097
1939. 8. 17 098
1939. 8. 19 098
1939. 8. 22 098
1939. 8. 25 099
1939. 8. 28 099
1939. 8. 31 100
1939. 9. 1. 100
1939. 9. 4. 101
1939. 9. 6. 102
1939. 9. 8. 102
1939. 9. 11 102
1939. 9. 13 103
1939. 9. 16 104
1939. 9. 20 104
1939. 9. 23 105
1939. 9. 27 106
1939. 9. 30 106
1939. 10. 2. 107
1939. 10. 4. 107
1939. 10. 7. 107
1939. 10. 10. 108
1939. 10. 12. 109
1939. 10. 15. 109
1939. 10. 18. 110
1939. 10. 21. 110
1939. 10. 24. 111
1939. 10. 27. 111
1939. 10. 31. 112
1939. 11. 3. 112
1939. 11. 6. 112
1939. 11. 9. 113
1939. 11. 11. 114
1939. 11. 12. 114
1939. 11. 15. 114
1939. 11. 17. 114
1939. 11. 19. 115
1939. 11. 21. 115
1939. 11. 23. 115
1939. 11. 26. 116
1939. 11. 29. 116
1939. 11. 30. 116
1939. 12. 2. 117
1939. 12. 4. 117
1939. 12. 7. 118
1939. 12. 11. 118
1939. 12. 15. 118
1939. 12. 18. 119
1939. 12. 21. 119
1939. 12. 25. 120
1939. 12. 28. 121
1939. 12. 31. 121

1940년

1940. 1. 1. 123
1940. 1. 4. 123
1940. 1. 4. 124
1940. 1. 7. 124
1940. 1. 9. 125
1940. 1. 11 125
1940. 1. 14 126
1940. 1. 18 127
1940. 1. 19 127
1940. 1. 20 128
1940. 1. 21 128
1940. 1. 22 129
1940. 1. 23 129

Second Operation April 11,1944
入院 4月 11日 -退院 4月 27日
mama 血液球 7000, WBC
赤血球 471(0), RBC
血色素(Hb) 75, Hbn %
Weight 94Lb.

398

399

행정관리과

## 제3, 4, 5회 월간 인문학 강좌 운영

지난 5월 28일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적 소양 및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월간 인문학 강좌의 세 번째 강연으로 〈도슨트에게 듣는 미술극장〉이 진행되었다. 강연자인 도슨트 정우철은 기존 작품 위주의 전시 해설에서 벗어나 화가들의 삶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네 번째 강연은 6월 25일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과학탐험가 문경수가 진행하였다. 문경수 탐험가는 나사(NASA)의 우주 생물학자들과 인연이 닿을 수 있었던 과정, 호주·몽골·알래스카 등 지질학적인 명소에 대한 탐험, 조난을 당해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사연 등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 강연은 7월 24일 〈광야의 초인, 이육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로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나와 항일저항시인 이육사에 대한 밀도 높은 강의를 진행하였다.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에는 박소영 작가가 〈세계 뮤지엄 여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간 인문학 강좌는 별도의 사전 신청이 없는 무료 강연으로 강연 당일 시간에 맞추어 기념관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강연 일정은 기념관 공식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 등 기념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회 월간 인문학 강좌

전시운영과

## 어린이날 및 호국보훈의 달 계기 문화행사 개최

기념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문화행사 〈'꿈갓흔' 어린 날〉을 운영하였다. 색깔 점토로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임시정부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만들어 보는 〈임시정부 어린이 '임정둥이'〉와 독립운동가의 옷을 소재로 한, 추억의 종이인형 만들기 놀이 〈독립운동가의 옷〉 등을 비롯해 총 5종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기념관을 찾은 많은 어린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어린 날을 추억하며 오늘날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였다.

6월 5일부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일상 속에서 살아




〈'꿈갓흔' 어린 날〉 참여자 작품




〈모두의 유월〉 행사장 전경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전시장 전경

있는 보훈을 실천하며, 모든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 〈모두의 유월〉을 개최하였다. 사진을 찍으며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유월의 사진관〉과 색깔 점토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꽃을 만드는 〈추모의 꽃밭〉을 상시 운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작은 전시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임시정부 외교관의 방〉을 선보였다. 전시는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사 개괄', '세계에 독립의 목소리를 알리다', '독립을 써 내려가다',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만나다'를 소주제로, 임시정부 외교사와 관련된 사진, 문서, 영상자료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전시와 연계하여 주제별 기간별로 체험행사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하였다.

연구교육과

# 2024년 지역연계 학교관리자 자율연수 운영

기념관은 초 중등 교원(교장, 교감) 85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기념관 인근(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지역연계 학교관리자 자율연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임정특별시〉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기념관에서 개관하고 처음 개최한 교장, 교감 연수로 6월 21일(교장대상)과 6월 28일(교감대상) 두 차례에 걸쳐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이루어졌다. 연수는 김희곤 관장님의 강연, 상반기 특별전 전시해설,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소개, '작전명: 0411' 교육프로그램 체험, 서대문형무소 해설 및 자율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날 자율연수에 참가한 관리자들은 상설전시실 연계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작전명: 0411-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을 직접 수행해 보면서 교구재를 통해 상설전시실 전시물을 학습하고, 기념관 현장교육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지역연계 학교관리자 자율연수 참가자들



'작전명: 0411'을 체험해 보는 참가자들

**교장자율연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연수 내용의 전문성이 높았고, 임시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볼 있다는 게 좋았고, 체험교육은 활동적이어서 학생 교육활동에 좋을 것 같습니다.

무관심했던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연수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감자율연수**

이번 연수로 기념관이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수업 적용에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수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었고, 체험을 팀 동료와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념관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특별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억의 밤〉 개최



박종성 하모니시스트의 연주

기념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25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하여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억의 밤〉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의 가족들이 기념관과 보훈문화를 향유하고 보훈가족으로 자긍과 긍지를 갖도록 마련되었다.



〈기억의 밤〉에 참가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기억의 밤〉은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를 감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초 하모니시스트인 박종성 하모니시스트가 민요-새야 새야 등을 선곡하여 연주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네모난 작은 회고록 속에 다양한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듯, 작은 하모니카로 다양한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연주회 다음으로 전시기획자가 들려주는 해설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특별전을 관람했다. 전시자료를 대여한 분들은 더욱 뜻깊은 자리로, 참가한 독립유공자 2세, 3세가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전시, 자료 수집 등 기념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기념관은 〈기억의 밤〉과 같이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보훈가족 간, 기념관-보훈가족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

# 기념관 타임라인

# 2024 0501~ 0731

## 5월

5월 2일
2024 박물관·미술간 주간
〈뮤지엄 X 그리다〉 참여

5월 5일
어린이날 계기 문화·체험행사
〈'꿈갓흔' 어린 날〉 개최
복합문화공간, 4층 전망대

5월 26일
제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
의정원홀

5월 28일
임정기념관 월간 인문학강좌
〈도슨트에게 듣는 미술극장〉 운영
의정원홀

## 6월

6월 6일
호국보훈의 달 계기 문화·체험행사
〈모두의 유월〉 개최
복합문화공간

6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강원광복기념관

6월 21일
제2회 교원 자율연수 프로그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운영
의정원홀

## 7월

6월 25일
특별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억의 밤〉 개최
복합문화공간

6월 26일
임정기념관 월간 인문학강좌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운영
의정원홀

6월 28일
제3회 교원 자율연수 프로그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운영
의정원홀

7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여주박물관

7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7월 24일
임정기념관 월간 인문학강좌
〈광야의 초인 이육사〉 운영
의정원홀

7월 31일
제1기 교원 직무연수
〈임시정부愛 빠지다, 학교 밖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
의정원홀

# 2024년 3/4분기 기념관 주요소식 알림

## 8~10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신나는 여름방학, 기념관을 찾은 여러분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함께 시원하고 의미 있게 여름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 안내 신청 링크

## 전시해설 안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관람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해설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니, 해설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매주 화~금 | 매주 토·일/공휴일 |
|---|---|
| 11:00 | 11:00 |
| 14:00 | 13:00(특별전시) |
| 15:00(특별전시) | 14:00 |
| 16:00 | 15:00(특별전시) |
| | 16:00 |

장소
기념관 1층 안내데스크

접수방법
현장접수(회당 30명 이내 선착순, 별도 예약 없음)

단체해설문의
전시운영과 02-772-8754/8760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장소 및 전시기간
강원광복기념관
2024. 6. 20. ~ 2024. 9. 1.
여주박물관
2024. 7. 9. ~ 2024. 9. 2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2024. 7. 23. ~ 2024. 9. 1.

## 2024 상반기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

전시 기간
2024. 4. 12.~ 2024. 9. 1.
장소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 내용
회고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쓴 회고록을 통해
그들의 삶과 당시의 감정을 확인

## 유물 기증 안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갈 많은 분들의 기증을 기다립니다.

기증 대상
¶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을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유품, 생활용품 등 역사자료
¶ 출처가 분명하며,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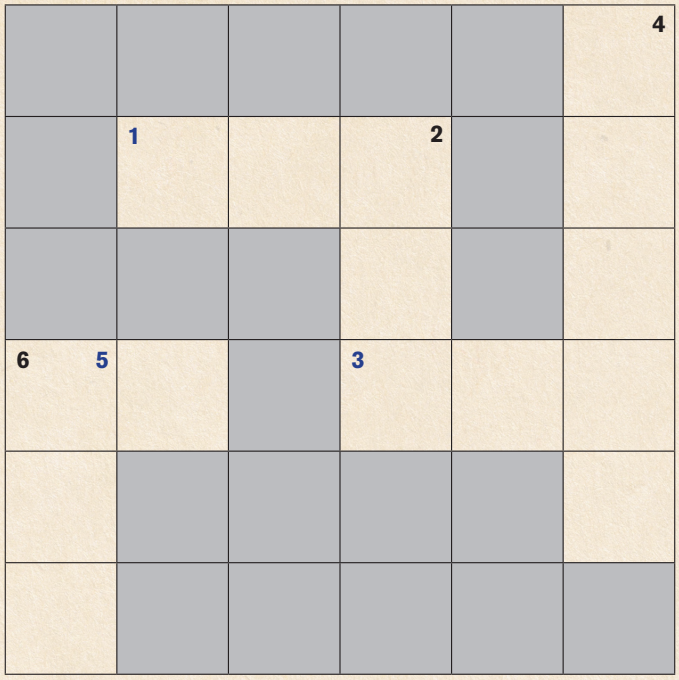
기증 문의
연구교육과 02-772-8794

## 2024 하반기 특별전시 〈문화의 힘으로 이룬 조국 독립(가제)〉

전시 기간
2024. 10. 1.~ 2025. 2. 1.
장소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 내용
교육, 언론, 예술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를 만들고 지켜내는 것 역시 독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조명

※ 전시 및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로세로 낱말퀴즈〉




## 가로낱말

1.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이미륵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했던 헌법기관. 7부 1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국무회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5.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알리고,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해 다양한 OO 활동을 펼쳤다.

## 세로낱말

2. 상하이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경찰 기구의 명칭. 백범 김구가 이 조직의 국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 파리에 설치한 외교부서. 『구주의 우리 사업』, 『한국의 독립과 평화』 등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를 관장하던 곳으로 현재 외교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답은 다음 호에서 공개됩니다.

소식지 〈독립신문〉 관련 문의
E-mail: imjung0411@korea.kr

# 緒論

第一次歐戰告終，美總統威爾遜氏提倡民族自決，並召集汎太平洋會議，以解決各民族問題。風聲所播，全球響應，凡屬被壓迫民族，莫不奉爲經典，思謀恢復獨立自由。韓國久受日寇荼毒，夙在水火之中，所遭痛苦，尤遠過其他弱小民族。威論一出，大受刺激，多年來之積鬱苦悶，煎熬不可待，乃於一九一九年三月一日，舉行全民大示威運動，推選代表三十三人，會集於明月館，發表獨立宣言，組織臨時政府，用是粉碎日寇之奴隸鎖鏈，重躋三韓於獨立自由之域。

韓國臨時政府之組成也，由無數先烈之鮮血所灌溉，由三千萬愛自由之韓民所擁護，由全世界崇正義之人士所同情，由萬千不屈不撓之革命志士所推進。第以倭寇鷹犬，密佈國內，憲警偵探，羅網綦嚴，既不能順遂推行政令，重申國權，勢須在國外擇較安全之所，設置政府，以求政權之穩定，政令之貫澈。會當時諸革命領袖，多雲集上海，



ISSN 2951-0430

**『중한외교사화』**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펼친 외교활동을 기록한 민필호의 저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